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2호 HYUNBULNEWS.COM 2025년 5월 28일(음력 5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이재명·김문수 불교 공약 '불교문화·정신건강' 강조

6월 3일 대선 앞두고
'불교 맞춤 공약' 발표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보급 등 대동소이
불교계 현안 해결 약속



이재명 후보 주요 불교 공약

- 문화유산 소방·방재시설 확충
- 연등회 전승관 건립 추진
- 문화유산관람료 감면제도 규제 완화
-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 민간 차원 불교문화교류 확대 지원

김문수 후보 주요 불교 공약

- 정신건강 증진 위한 선명상 보급
-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 전통사찰 재난 예방시설 구축
-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지원 확대
- 국가기념일로 호국의승의 날 제정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잇따라 불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는 공약에서 전통불교문화 전승 보존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 가치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및 문화유산 관람료 규제 완화 △국립공원·사찰림 등 문화유산 관리 지원 △국민 정신건강 증진 위한 템플스테이 및 명상 보급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관 건립 등은 두 후보 모두가 강조한 정책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부처님 오신날인 5월 5일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불교문화지원 정책발표문'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은 △전통문화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보존·전승 정책 강화 △전통문화 유산 관리 제도 개선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적 역할 지원 강화 등으로 특히 "불교가 사회 통합의 종교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체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불교문화의 안정적 전승과 보존은 우리 시대의 사명이자 후세에 대한 책임"이라며 "불교문화를 전승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는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민주당과 저는 불교문화 전승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재난 대비 주변 정비 사업 지원 △연등회 전승관 건립 △팔만대장경의 현대적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 완화 △사찰림·사찰지 등 복합 문화유산 관리 지원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전통사찰 관리 보호 강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민간 차원의 불교문화교류사업 지원 등 세부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5월 21일 불교 공약을 발표하고 △문화유산 관리 지원 체계의 전향적 개선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 보급과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산불 피해 전통문화유산 조속 복원과 재해예방 종합대책 수립 △연등회 전승관과 10.27법난 기념관 등 불교계 숙원사업 지원 등을 큰 틀로 제시했다. 전통불교문화를 계승 선양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전폭 확대해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특히 '문화유산 관리 지원체계의 전향적 개선'에서는 전통사찰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각종 행위 제한 등 규제적 요소 개선을 포함한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지원 제도 개선,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자부담율 조정 등이 언급됐다. 또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선명상 보급을 위해 공직자 및 교직자 연수에 선명상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밖에 호국애민불교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호국의승의날 제정과 호국의승 선양관 건립 추진, 불교계 아픔을 기리는 10.27법난 사업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선진 대한민국의 K-컬쳐 뿌리에는 자랑스런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만큼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계승 선양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화마 지난 자리에도 꽃은 핀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의성 운람사까지 집어삼켰다. 강풍을 타고 넘어온 화마는 1300년 역사의 전통사찰 운람사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산불 발생 후 두 달, 그을린 나무에서도 하얀 불두화가 피어나듯 운람사는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의성=김내영 기자

불교 불살생 기반 '사찰음식', 국가무형유산 지정

국가유산청, 5월 19일 지정 공고
사찰 중심 전승…고유 특징 담겨
보유자 없는 공동체 종목에 지정
국가유산청 "전승 활성화 지원"



서울 진관사 사찰음식. 사진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불교의 불살생 사상에 기반한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사찰음식'을 신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다"고 5월 19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사찰마다 다양한 음식이 전승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불교 사상에 기초하여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식문화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고려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목은시고(牧隱詩藁)〉와 같은 문헌에서 채식만두와 산갓김치 등 사찰의 음식과 관련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묵재일기(默齋日記)〉, 〈산중일기(山中日記)〉의 기록을 통해 사찰이 두부, 메주 등 장류와 저장 음식의 주요 공급처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대부가 곡식을 교환하는 등 음식을 통해 민간과 교류해 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면서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찰음식'에 대한 학술연구, 전승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관련 특별기고 7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인증
승려연수과정

2025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생활수행과 현대적 포교방안
- 화엄세계 : 수행과 담선
- 생활 속의 마음공부 – 치유와 공감
-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 커뮤니케이션과 포교
- 대승기신론과 한마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연수인증 : 조계종승려연수과정 (30점)
- 기 간 : 2025년 7월 17일(목) ~ 19일(토)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강 사 진 : 승단 전문강사진 – 청동스님 (동국대 불교학 박사 수료) 등
재 가 교 수 진 – 이화행 교수 (동명대), 황수경 교수 (동국대) 등
- 교 육 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 인 원 : 40명 (선착순 마감)
- 신 청 : 031-470-3200/3201 (일, 월 휴무)
- 웹사이트: http://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조계종, 출가 전 이력으로 소임 제한 논란

종헌특위 성안 후 내부 찬반 일어
"삼보정재 보호"…다수 소임 제한
재적승 10분의 1이 '역차별' 예상
선우회 "공동체 근간 훼손" 반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이 결혼 등 출가 전 이력을 기준으로 종단 주요 소임을 제한하는 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종단 내부에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의 스님들이 출가 전 이력에 따라 각종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종법이 개정되면 제약을 받는 스님이 재적승의 10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선광 스님)는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개최하고 '승려 사정에 따른 종단 소임 구분' 종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개정안은 6월 10일 개원하는 제234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승려 사정에 따른 종단 소임 구분'은 종단의 전통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삼보정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한다. 출가 전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으로 법률적으로 독신이지만 민법에서 상속권이 인정되면서 재산 분쟁이 종종 벌어지고 삼보정재가 유출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종헌' 제9조에 따르면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여야 한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시 귀의한 자에 한함)의 기득권은 인정하되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승려법' 제34조6(분한심사)는 조계종 승려의 분한심사 사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사정 갑'의 경우 청정 독신 출가자, '사정 을'은 출가 전 이혼자로 무자녀 출가자, '사정 병'은 출가 전 이혼자로 가족부양책임이 일체 없는 자 또는 비구·비구니로서 환계한 후 재수계한 자, '사정 정'은 '종헌'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기득권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갑'은 종단의 모든 소임을 수임할 수 있고 '을'은 종정, 원로의장, 전계대화상, 총무원장, 종회의장, 호계원장 및 종헌종법 상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소임을 수임할 수 있다. '병'과 '정'은 중앙(교구)종회의원,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선출직 종무원, 공찰말사 6등급 이상 주지, 창건주 권리승계 등이 제한된다.

이날 특위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선거법, 종무원법, 원로회의법, 총림법, 산중총회법 등 5개 종법 개정안을 성안했다. '을'은 '갑'과 동등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병'과 '정'은 주요 소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헌특위 회의에서도 몇몇 스님들은 "최근 늦은 나이에 출가하며 결혼 이력이 있는 출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출가 이전 이력으로 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선우회(회장 성로 스님)는 5월 21일 '승가공동체 근간 훼손하는 종법 개정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우회는 성명서에서 "출가 전 이력에 따른 차별은 수행자에게 낙인을 찍는 일"이라며 "출가 전 이력의 소급 적용은 평등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삼보정재 보호는 필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삼보정재가 속가 가족에게 유출되는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그 해법이 스님의 과거 이력 통제와 소임 제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들은 "재산 유출 문제는 사찰 회계의 공공성 강화와 상속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수행자에 대한 차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단 구성원의 합의 없는 개정은 분열을 초래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승려사정에 따른 소임 제한 법안의 입법 추진 즉각 중단 △불교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출가자 차별 조항 철폐 △공청회 등 공개적 절차 통한 종단 구성원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출가자의 삶은 과거를 끊고, 지금 여기에서의 청정한 행으로 자신과 사회를 구제하려는 숭고한 발심에 근거한다"면서 "그 원력을 제도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 불교의 미래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위에서만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자살률 급증…공교육서 마음챙김 훈련 절실"

미래본부, 5월 18일 선명상 세미나
"선명상 활용한 1차 예방 중요"



서완석 영남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진료 중 만난 학생들의 사례를 설명하며 이들이 자주 하는 생각과 사용하는 말로 '지친다'를 꼽았다. 학교정신건강의학회장이기도 한 서완석 교수는 공교육 과정에서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음챙김 치료와 함께 선명상 교육 반영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

조계종 미래본부는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초·중등 선명상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선명상, 미래 교육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동국대WISE 아동인성교육연구소가 함께했다.

서완석 교수는 이날 '한국형 사회정서교육개발을 통해 본 공교육에서의 선명상 의미' 발제에서 학생마음건강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마음챙김 치료와 선명상 교육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1월 주요 정책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개발,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사회정서능력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부 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근거법률 마련 구축에 나섰다. 치유와 회복에 초점을 맞춰 초중고교생용 '정신건강 위기선별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한편 학생정신건강지원 전문기관 및 치유기관에 연계해 적기 상담 및 치유를 지원키로 한 것.

서 교수는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이 상위권인 현실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에서 마음건강을 위해 마음챙김훈련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자기 인식과 관리가 주요한 시기"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 14%가 정신건강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청소년 진료인원도 65.5% 급증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서 교수는 전 세계적인 정서기능함양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행할 수 있는 3단계 예방 과정을 안내했다. 그에 따르면 1차 예방은 선명상을 포함한 마음챙김과 사회정서교육, 2차 예방은 위험도가 높은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위기개입서비스 제공, 3차 예방으로 사후 개입과 1~2차 예방으로 나뉜다. 선명상과 마음챙김을 활용한 1차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한 서 교수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미래본부는 사찰 법회 등 종단 행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명상 영상 콘텐츠를 공개했다. 영상 콘텐츠는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www.seonmeditation.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수행자 위의 갖춰 포교 전법"

5월 19일, 직할교구 포살법회
비구 85명·비구니 134명 동참
진우 스님 "분별심 내지 말 것"



불기 2569년 하안거 정진이 5월 12일 시작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사찰들로 구성된 조계종 직할교구의 하안거 첫 포살법회가 봉행됐다.〈사진〉

조계종 직할교구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직할교구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회의 법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단에 올라 〈범망경보살계포살본〉 봉독으로 십중계와 48경계를 설하며 계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참법문에서 〈신심명〉의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단막증애 통연명백(但莫憎愛 洞然明白)'을 언급하며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결코 어려운 것이 없으니 이를 화두로 삼아 보고, 행함을 멈추지 말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삶은 항상 이것과 저것 중에 선택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삼독이 있으면 인과법에 의해 과보를 받게 된다"면서 "나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한다면 똑같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미래를 보려면 지금 자기 모습을 보고 과거를 보라 했다"며 "옳고 그르다 좋다 싫다 하는 감정은 결국 과보가 돼 돌아온다.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즉,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행자로서 위의를 갖출 것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위의 갖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포교와 전법"이라며 "보살의 행을 따라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강조했다.

포살법회에는 비구스님 85명, 비구니스님 134명이 참석했다. 임은호 기자

태고종, 전국 승려·전법사 연수교육

5월 20일 법륜사 대불보전서
상진 스님 "넓은 세상을 보길"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전국 스님과 전법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태고종은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2025 전국 승려·전법사 연수 교육'을 개최했다.〈사진〉

교육에 앞서 진행된 입재식에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현중 스님과 교육 참석 스님, 전법사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연수교육에 참여해 감사하다"면서 "우리 종단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은데 눈에 잘 띄질 않는다. 능력있는 인재들이 총무원에서 실력발휘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에서는 설계를 열심히 할 것이고, 집은 종도 여러분들이 지어가길 바란다"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상을 넓게 보는 종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재홍 스님은 인사말에서 "교육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종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연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더 알차고 보람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태고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종도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사찰보험전문가 정재호 인카금융서비스 지점장이 사찰화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가 '사찰의 미래적 활용 방안'을 강의했다. 이어 장선영 행사 전문 아나운서가 사찰 행사 진행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신중일 기자

三歸依戒
제8회 삼귀의계
五戒
오계
수계대법회
2025. 7. 15 (음 6. 21)
화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 흰색, (하의) 편한 바지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태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선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인호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연수국장, 혜원정사 주지)
지산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교육국장, 내원정사 불교대학 학장)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검색
주최 · 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사무국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
삼봉산 초은암
숲속의 아란야
맑은 마음 밝은 지혜 아름다운 자비로 보리심 피우는 절
진신사리탑 · 람림법회 · 보리수행도량
맑고 밝고 아름답게
매주 람림(깨달음에 이르는길) 법회
전화 055-945-1037
툽뗀최코르셰둡링 · 보리행원
주소 경남 거창군 고제면 와룡길 79-50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

“전법 역량 강화…출가 진흥·신도 활성화 주력”

정책 수립·집행 과정 속도 기대
하반기 출가 진흥·인력 조직 집중
10개 권역 출가학교 설립 계획도
본사 포교국 정비·협의 체계 구축
MZ 맞춤 SNS 콘텐츠 개발 지속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4월 1일, 30년 만에 삼원 체제를 일원화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총무원·포교원·교육원으로 분리돼 있던 조직을 총무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특히 포교원은 포교부로 재편돼, 포교 종책의 기획과 집행을 담당한다.

조직 개편 시행 두 달을 맞아, 포교부장 남전 스님에게 통합 후 현장의 변화와 하반기 운영 기조 및 포교 종책 추진 방안을 들었다.

Q 포교원이 포교부로 전환됐다. 조직 개편의 취지는 무엇인가?

조계종은 1994년 종단개혁의 결과로 교육과 포교를 강화하기 위해 삼원 체제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세대가 바뀌었고, 탈종교화와 인구 감소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종단의 정체성과 존립에 대한 냉철한 판단 속에서 통합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었고, 그 결과 일원화 체제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체제의 장점은 계승하되 비효율적인 행정은 줄이고, 종단의 미래전략 수립과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일원화 후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직 큰 변화는 체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원 체제에서 필요했던 복잡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앞으로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교의 중요성이 종단 내에서 우선순위로 자리 잡게 되면서, 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종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종단의 전법 역량 축소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형식적으로는 독립성과 차별성이 약화된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의 본질은 ‘전법 역량 강화’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변화에 대한 우려는 그 안에 담긴 촘촘한 기획과 전략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조직 개편의 기조가 ‘포교 강화’에 있는 만큼, 종단 차원에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하반기 주요 사업과 중점 과제는?

먼저 포교부의 새로운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출가 진흥과 포교 인력 조직화, 신도 활성화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인천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 포교 조직과 지원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또 법회의 현대화와 신도 교육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문화와 건강을 접목한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바라밀 골프대회’와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신도 활동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조계종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조직 개편 기조가 ‘포교 강화’인 만큼, 종단 차원에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Q 포교부로 이관된 ‘출가’ 관련 종책은 무엇인가?

출가상담사 지원 관리와 출가 장려 홍보 업무가 포교부로 이관됐습니다. 단순히 출가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출가 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 포교부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경기, 강원, 충청,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부산, 제주 등 10개 권역별 출가체험학교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정사의 단기출가학교를 벤치마킹해 체계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 중입니다.

또 매년 150여 명이 활동하는 군종병과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등 청소년·청년 대상 조직과 연계해 출가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중앙종회 출가장려특별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도가 출가자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각 교구본사 포교국과의 연계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방안은?

교구본사는 지역 행정 체제를 총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사 내 포교국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포교국의 기능을 총무·기획·재무 등 다른 부서 스님들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전국 포교국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수렴, 중앙 포교 종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어떤 인력이 오더라도 포교 업무에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Q 포교·신도단체 조직 정비 방안과 역할은?

기존 30여 개 포교·신도단체는 그대로 승계되지만 조직이 일원화된 만큼 그에 걸맞은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포교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기존 신도단체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신도 창출을 위한 전략 전환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포교’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조계종 포교사단은 교육·활동 영역과 운영 방식을 전면 재정비 중이며, 6월 말 정비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법단의 경우 군·경찰·병원 등 특수 영역에서 지역포교를 보완하는 역할로 출범한 조직입니다. 포교 손길이 닿지 않는 취약 지역 중심으로 전법단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포교 인력을 결집해 지역포교 활성화에 실효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Q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 전략은?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려면 이들의 관심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포교부가 놓치지 않고 해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MZ세대는 SNS 의존도가 높은 만큼 포교부에서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젊고 활기찬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 캐릭터 ‘반야’ 인형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콘텐츠 조회수도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는 불자뿐 아니라 일반 청년까지 아우르는 콘텐츠 개발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Q 어린이·청소년 포교 관련 종책은 무엇인가?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계층 포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해마다 어린이 법회 참여가 줄고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했듯 각 교구 포교국의 역량 강화를 통해 교구본사별로 어린이·중고등부·청년회 법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 시대에 맞는 법회 운영을 위해 6월 중 ‘현대화된 법회’를 주제로 연찬회를 열어 장기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Q 불교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은?

불교 크리에이터 양성은 불교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창작자를 발굴해 SNS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기 27명이 위촉됐고, 유튜버·일러스트 작가·3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포교부는 템플스테이나 간담회를 통해 크리에이터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창작에 영감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차를 맞아 기존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년엔 AI 시대에 맞춘 포교 전략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승가대, 교육·신행공간 ‘문수원’ 첫삽

5월 20일, 문수원 착공식 거행
50평 규모 목조건물…12월 완공

조계종 대표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총장 월우 스님)가 교내에 신행도량 ‘문수원’을 조성한다. 문수원은 학인스님들의 정진처이자 지역 불자들의 신행처로, 대학과 지역을 잇는 수행·포교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포 중앙승가대는 5월 20일 교내 본관 옆 문수원 건립 예정 부지에서 ‘문수원 착공식’을 거행했다.〈사진〉



이날 월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창립과 김포학사 이전 과정을 회고하며 “문수원을 국내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러 오는 통합형 교육·수행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수원 건립은 총장 월우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2000년부터 중앙승가대 총무처장을 지낸 월우 스님은 오랜 시간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며 교직원과 학인스님, 지역 불자들이 함께 심신을 수련하고 올바른 신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정진 도량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총장 취임 이후에는 지역 사찰과 사암연합회, 김포시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문수원 조성을 구체화했고, 그 결실로 이날 첫삽을 뜨게 됐다.

문수원은 약 50평 규모, 목조건물로 지어진다.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문수·보현보살을 협시로 봉안할 예정이며, 완공은 올해 12월을 목표로 한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전통·가치 알릴 축제의 장 열린다

문화사업단, 6월 7~8일
양재 aT센터 1전시장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오는 6월 7~8일 서울 양재 aT센터 1전시장에서 ‘제4회 사찰음식 대축제’를 개최한다.

개막식은 6월 7일 오전 11시 행사장 메인무대에서 진행된다.

기획전시로는 전통 공양간과 수륙재 의례상을 재현해 사찰음식의 원형과 전통을 조명하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빛나는 사찰음식전’과 사찰음식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하는 사찰음식전’이 대중을 기다린다. 사찰음식 장인인 18명 스님의 이야기로 구성된 특별전시도 공개된다.

사찰음식 특화사찰 8곳(금수암·동화사·백양사·법룡사·봉녕사·수도사·영선사·진관사)과 템플스테이 지정 사찰 중 사찰음식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3곳(광제사·능가사·전등사)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에서는 각 지역 제철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찰음식을 만나볼 수 있다.

개관 10주년을 맞은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은 사찰음식 장인스님과 함께 체험관 대표 프로그램인 ‘사찰음식 첫걸음’, 직접 손질한 나물을 가져갈 수 있는 ‘스님과 나물 다듬기’, ‘스님과의 차명상’ 등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명장 스님 6명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 외에도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의 단품 메뉴와 사찰음식 관련 상품 및 서적을 구매할 수 있는 팝업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 입장은 무료이며, 사전 등록한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김내영 기자

인도,네팔 성지순례
실크로드의 인도성지순례는
좋은 조건에 베테랑 가이드가 안내합니다.
1차 | 10월23일 출발~11월02일 도착(11일 일정)
2차 | 11월28일 출발~12월07일 도착(10일 일정)
3차 | 12월05일 출발~12월14일 도착(10일 일정)
▶ 일정 :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축산-나란다대학-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일정 : 9월11일~9월16일
인천-남경-구화산-항주-보타산-상해-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9월10일 출발~9월14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9월11일~9월20일
▶ 동참금 : 34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불교 경전상의 수미산의 모델로 지칭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1차 | 6월07일~6월22일(16일간)
2차 | 9월13일~9월28일(16일간)
▶ 일정 : 인천-성도-라싸-간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 동참금 : 570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광우사)-인천
▶ 동참금 : 159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아름다운 부탄과 네팔 카트만두 불교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9월13일~20일(6박8일)
■ 일정 : 인천-카트만두-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조계종은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측에 정책자료집을 전달했다. 사진왼쪽부터 조계종 기획실장 법오 스님과 자문위원 우봉 스님이 국민의힘(5월 19일) · 더불어민주당 · 개혁신당(5월 20일) 선거캠프에 자료집을 전달하는 모습.

조계종, 정책 홍보 '잰걸음'…후보에 제안서 전달

기획실장 법오 스님 등 대표
5월 19일 국민의힘 캠프 방문
20일 민주당, 개혁신당에 전달
전통보존 · 정신건강 증진 제안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계종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3개 정당 대통령 후보 측에 국민행복을 위해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전달식은 불교문화 계승·발전과 전통문화유산보존, 국민 마음건강 증진, 사회통합 실현이라는 공공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국민 행복'과 '사회 통합'을 핵심으로 4개 분야 18개 과제가 담긴 정책제안서는 △전통사찰 보존 및 지도 제도 개선 △전통문화유산의 면단위 보존관리 △불교문화유산의 형평있는 예산 반영 △연등회 전승관 건립 △명상 대중화와 정신건강 교육 도입 △불교문화교류 확대 등 우리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정신적 안정을 뒷받침할 실질적 내용들로 구성됐다.

각 정당들은 조계종이 제안한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계종은 5월 19일 기획실장 법오 스님, 정책기획단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우봉 스님을 대표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를 방문해 불교계 현안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조계종 측은 불교계 공약을 넘어 국민 행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임을 강조했다. 법오 스님은 "정책 자료집은 불교계 정책 공약보다는 국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제안을 담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선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봉 스님은 국가지정 문화유산과 전통사찰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특정종교에 대한 지원 요청이 아닌 국민행복을 위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전통사찰 보존지 문제 등 불교계의 숙원사업을 김문수 후보가 공약화했으면 좋겠다"는 조계종의 제안을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5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 불교본부장 김병주·김영배·김준혁 의원을 만나 정책 자료집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발표한 '불교문화 공약'에서 "전통문화 및 불교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그러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완화 및 재난대응 시설 확충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제도 개선과 복합유산에 맞는 관리체계 수립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의 전승관 걸비 △템플스테이 및 명상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종교본부 불교본부장 김병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계종과의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불교문화 정책을 실현하고 전통문화의 가치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의원도 "불교 문화의 정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조계종은 개혁신당 캠프를 방문해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정책 자료집을 전달하고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법오 스님은 "면밀한 검토로 대선 정책에 반영,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호법불교 정신을 강조한 이주영 의장은 "불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 용맹한 기상을 보여줬고, 국민이 평화로운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종교"라며 "지금처럼 국내외가 혼란한 상황에서 불교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태고종 찾은 설난영-비구니회 방문 김혜경 '대선 내조'

설난영 여사, 상진 스님 예방
경기도에 '종무과' 신설 어필
김혜경 여사, 비구니회 방문
교구본사주지협 회의서 인사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설난영 여사의 불심(佛心) 잡기 '대선 내조' 경쟁이 치열하다.

설난영 여사는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을 방문해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전승관에 도착한 설 여사는 먼저 불이성 법륜사 대불보전을 참배하고 부처님께 예를 올린 후총무원장 접견실로 이동해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설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설난영 여사는 5월 20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예방했다.

당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종무과'를 신설하고 경기 지역 사찰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며 "전국에 산재한 전통사찰과 그 안의 문화유산들은 귀중한 전통문화이며,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불교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예산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 이는 김 후보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혜경 여사가 5월 5일 태고종 봉축법요식서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태고종은 전통 종단으로서 국가·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종단이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며 후보님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설 여사는 이날 삼천사 은영노인복지관과 진관사를 잇달아 방문해 불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김혜경 여사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 사찰들을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실천 중이다.

김 여사는 5월 19일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를 찾아 비공개로 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지난 5월 12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 70주년 행사에 설난영 여사와 함께 참석한데 이어, 5월 15일에는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83차 회의가 열리는 불국사를 찾아 주지 종천 스님을 예방하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에게 인사했다. 16~18일에는 호남 지역에 머물며 불교 등 종교계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에는 상진 스님의 주석처인 양주 청련사를 찾아 태고종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으며, 5월 7일에는 신흥사 등 강원 지역 불교계를 비공개 방문해 내조를 이어갔다.

신중일 기자

대학생 불자 110명 봉은사서 합동 수계

수도권 20여 개 대학 동참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수계법회를 통해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는 5월 1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제11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수계법회에는 경희대·덕성여대·서강대·서울교육대·서울대·서울여자간호대·성균관대·성신여대·숙명여대·숭실대·신한대·이화여대·인하대·한양대·홍익대 등 수도권지역 20여 개 대학에서 11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대불련 지도법사)과 효석 스님(이화여대), 덕경 스님(숙명여대), 범준 스님(서울여자간호대), 수인 스님(한양대), 연기 스님(경희대), 탄현 스님(서울교육대) 등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동참해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은 "봉은사는 1963년 대불련이 창립 발원을 세운 곳"이라며 "대불련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계법회를 열게 돼 뜻깊다"고 인사했다. 유 회장은 이어 "수계가 부처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내 안의 등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불자로서 내딛는 첫걸음이 자비와 지혜의 길로 이어져 우리 청년 불자들이 세상을 밝히는 마중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계사로 나선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오늘 참석한 청년·대학생 불자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여러 방면에서 활약할 텐데, 그 과정에서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 동체대비의 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수계를 지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이 사회까지 평화롭게 만든다. 오늘 받은 삼귀의계와 오계를 늘 마음 깊이 새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은 대학생들은 "진정한 불자로 계를 지켜나가겠다"고 서원했고, 유주연 대불련 중앙회장과 소원현 서울대 법우가 대표로 수계첩을 받았다. 특히 대학생들의 법명은 각 학교 지도법사 스님이 직접 지어줘 수계에 의미를 더했다.

김내영 기자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낡은 나무 책상위, 고사리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
뭉그러진 연필과 공책을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함께 열어주십시오.

지원 물품 학용품(가방, 노트, 연필, 연필깎이…), 신발, 의약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후원 문의 02)2004-8214 (홍승도)
캄보디아 현지 방문 1차 : 6월 9일~14일 2차 : 모연중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화마 딛고 새 희망 싹틔우는 의성 운람사

1300년 역사 전통사찰…대웅전 등 전소
임시 건물 생활하며 삼성각서 법회 · 기도
등오 스님 "전국 각지 따뜻한 위로 감사"
"도량 불사 시동…산불 예방 대책 절실"

의성=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현재 주차장 한편에 마련된 임시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다.



◀산불로 전각 6개 동이 불에 탄 의성 운람사는 화재 발생 후 두 달여 만에 재건 불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초속 25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운람사를 덮쳤다. 대웅전을 비롯한 요사채 2동과 공양간 등 총 6개 동이 불에 타면서 1300년 역사의 전통사찰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다. 다행히 삼성각과 해우소는 불길을 피했지만, 사찰을 지켜온 스님과 불자들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산불 발생 두 달을 앞둔 5월 16일 의성 운람사를 찾았다. 사찰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타다 남은 나무들과 시커멓게 그을린 흔적들. 불탄 목재들이 곳곳에 쌓여있고 담벼락엔 그을음 자국이 선명했다. '삼재 소멸', '건강 발원'이 적힌 기왓장들이 흩어져 있고 화마의 잔향은 아직도 코끝을 찔렀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현재 주차장 한편에 세워진 임시 건물에 머물며 사찰을 지키고 있다.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집기와 건물이 불에 타 불편함이 한둘이 아니다. 그렇지만 삼성각에서 법회와 기도를 이어가고, 장독대에 남은 장으로 소박한 공양을 준비한다. 화마를 피한 해우소도 있어 최소한의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천막을 치고 지내다 열흘 전 임시 건물로 옮겼어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기도하고 먹고 씻을 수 있는 여건만큼을 남겨준 부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전했다. 운람사는 산 정상에서 불과 10m 아래에 위치해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스님은 즉시 본사인 고운사에 상황을 알렸고, 고운사 스님들이 급히 달려와 대피를 도왔다. 아미타삼존불과 탄생불, 신중탱화 등 주요 성보는 사찰 인근 의성조문국박물관으로 이운해 피해를 면했다.

산불 진화 직후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등오 스님에게 큰 힘이 된 건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스님들과 불자들의 따뜻한 위로였다. 모두가 제 일처럼 나서 도왔고, 멀리서도 운람사의 아픔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의 성금 전달과 진심 어린 격려가 깊은 감동을 안겼다.

"운람사는 지금 큰 수술을 마친 환자처럼 천천히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느리지만 분명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도량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산불의 위협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등오 스님은 "사찰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고 산 중턱에 위치해 산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사찰 환경에 적합한 묘목을 심고,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제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재건 불사'도 고민하고 있다. 그간 불편했던 공간 구조와 기능을 개선해 실용적인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등오 스님은 "새로 짓는 만큼 더 나은 공간으로 구성해 불자들이 편하게 찾는 사찰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전국비구니회, 산불 피해 주민 위로…"일상 회복하길"

5월 16일, 의성 · 안동 · 영덕 찾아
마을 4곳에 성금 총 4000만원
광용 스님 "기운 내시길" 격려
주민들 "큰 힘 주셔서 고맙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의 위로에 눈시울을 붉히는 주민.



4평 남짓한 임시주택을 둘러보는 비구니 스님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이하 비구니회)가 지난 3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을 찾아 위로를 전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스님들은 검게 그을린 산자락 곳곳에서 다시 연초록 새순이 돋아나듯, 주민들도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길 간절히 기원했다.

비구니회는 5월 16일 의성 구계1리와 구계2리, 안동 일직면, 영덕 따개비마을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성금 총 4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현장에는 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부회장 일양 스님, 수석부운영위원장 정관 스님, 부위원장 지효 스님 등 주요 임원 스님들과 지역 지회장 스님들이 함께했다.

가장 먼저 스님들이 향한 곳은 고운사 인근 의성 구계1리 마을. 산불로 마을 전체 23가구가 전소된 이곳은 여전히 잿더미가 남아 있어 참상을 짐작케 했다. 스님들은 집을 잃고 마을회관에서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성금과 함께 준비한 떡과 음료를 선물했다.

회장 광용 스님은 "산불 진화 후 위로차 고운사를 비롯한 사찰들을 찾았을 때, 스님들께서는 사찰보다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더 걱정하셨다"며 "5000여 비구니 스님들께서 모아준 성금이 조금이나마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오랜 세월 살아온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그래도 부디 기운 내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현재 주민들은 군에서 지정한 숙소나 마을회관 등에서 생활 중이며, 임시주택 건립이 마무리되는 1~2일 내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권웅기 구계1리 이장은 "불이 났을 때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나왔는데, 스님들의 지원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스님들은 구계2리 마을로 자리를 옮겼다. 이곳은 전체 44가구 중 28가구가 불에 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2주 전부터 약 4평 남짓한 임시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스님들은 임시주택 단지를 돌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특히 이날 성금 전달을 위해 대전에서 온 덕수암 주지 명은 스님은 주민 한 명 한 명의 손을 맞잡으며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다. 아프지 말고 힘내셔라"고 진심을 담아 축원했다.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은 "산불 직후 의성을 방문했을 땐 마을이 삭막했는데, 이번에는 풀도 파릇파릇 올라오고 임시주택도 마련돼 조금은 안심이 된다"며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스님과 불자들의 '십시일반의 힘'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꾸준히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동으로 이동해 일직면 마을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스님들을 반갑게 맞았다. 18가구가 전소된 이곳 주민들은 노인회관에서 생활하며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몇몇 어르신들은 스님들은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김태분 노인회장은 "이렇게 먼 길 찾아와줘서 고맙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고, 오선자 할머니도 "화재가 나고 지금까지 화도 한 번 안 내고 웃으면서 견뎠는데, 스님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말했다.

비구니회는 58가구가 전소된 영덕 따개비마을 방문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성 · 안동=김내영 기자



사찰 편백나무 맞춤가구 전문점

스님 건강, '편백가구'로 지킨다

편백(히노끼)나무 효능

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 욕조를 비롯하여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침대 등 가구소재로 주로 사용된다.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데 이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편백나무는 일반나무보다 5.5배 가량 피톤치드가 많아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된다.

편백 온열 그래핀보료

신체 기(氣, Energy)를 충전하고 균형을 바로 잡는 초장파 에너지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은 인류의 오랜 소망
지친 몸과 스트레스를 수면과 함께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 피로 회복
- 근육 결림 해결
- 혈액 순환 개선
- 신경통, 근육통 완화
- 만성 피로 해소



편백침대





숙면이 보약
편백 숯침대



FINE TERRA
Love is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중생 아프니 나도 아프다”…불교, 독재에 맞서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군부독재 맞선 사부대중

김동수 열사–시민군 참여 ‘산화’
진각 이광영–총상 입고 속퇴해
성연 스님–시민군에 지원 활동
관음사 등 불교 학생회도 참여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보여줬던 사진. 계엄군이 몽둥이로 시민의 머리를 내려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 중 하나다.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시민들을 전두환 신군부는 군홧발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특히, 1980년 부처님오신날이었던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돼 아픔을 더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항쟁에 적극 참여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부대중들의 면면을 조명했다.

시민군과 함께 산화하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불자 중 가장 대표적 인물은 故 지광 김동수 열사(당시 22세)다. 그는 1980년 당시 조선대 공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전남지부장을 맡을 정도로 높은 신심을 가졌다.

실제 그는 향림사와 관음사 고등부 불교학생회 출신으로 항쟁 직전 광주지역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진행부위원장으로서 전남도청 앞 광장 점등식을 진행했다. 5월 17일 봉축행사 일환으로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법정스님·이항녕 박사 강연회도 주도했다.

모교인 조선대가 계엄군에 강제 점령당하고 학생들을 검속하자 김 열사는 잠시 목포로 피신했다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1일 광주로 와 시민들과 함께했다. 평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남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나누는 것이 보살의 삶”이라고 강조해 온 그는 전남도청 항쟁본부에 들어가 희생자들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을 맡아 희생자들을 염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하지만 5월 27일 새벽 4시 30분,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포위하자 시민과 함께 대치했던 김 열사는 결국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그의 주머니에는 단주 하나와 대불련 배지만이 남아 있었다.

구호활동 중 총상…평생 후유증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에 맞섰던 스님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2021년 11월 23일 자살로 유명을 달리 한 이광영 씨(진각 스님)다. 유서에는 “계속 아팠는데 요즘 통증이 더 심해지고 있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고 가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씨는 4시간마다 통증을 이기기 위한 진통제 주사를 맞을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렸다.

본래 이 씨는 화엄사로 출가한 스님으로 ‘진각’이란 법명을 썼다. 평생 스님으로 살기로 다짐했던 이 씨의 삶이 바뀐 장소는 1980년 5월 광주다.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수행하고 있던 진각 스님은 도반인 성연 스님이 준비하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 증심사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하게 됐다. 5월 19일 성연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을 보러 나온 진각 스님은 계엄군의 잔혹한 시위 진압을 목격하게 되고 수행자로서 외면할 수 없어 금남로에서 시위에 앞장섰다. 그러다가 계엄군에게 잡혀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으나 경찰과 공무원들의 도움으로 탈출해 나주 다보사로 몸을 피했다.

진각 스님은 5월 20일 성연 스님과 연락해 다시 시위에 참여하기로 하고 걸어서 광주로 왔다. 5월 21일은 부처님오신날이었지만, 스님은 시위대에 합류해 차량과 현수막에 구호를 쓰는 일을 주도했다. 스님이 쓴 구호들은 시위대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항쟁의 목표를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

이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하게 된다. 스님은 다른 대원들과 함께 약국과 개인병원에 약품을 조달하고 시내 병원에 시민들이 헌혈한 혈액을 보급했으며, 부상자들을 후송했다.



故 김동수 열사



故 이광영(진각 스님)



성연 스님



박행삼

그러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구하려다 척추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계엄군은 적십자 깃발을 꽂은 차량에까지 무자비하게 총격을 가했으며, 스님과 다른 대원은 총상을 입었고 다른 대원 2명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이 마비가 된 진각 스님을 계엄군은 ‘폭도’로 분류해 1981년 1월 강제 퇴원시켰다.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했다. 결국 속퇴해 결혼을 하고 속인 ‘이광영’으로 살아가게 됐다.

하지만 스님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반신불수의 고통과 경찰의 탄압에도 진각 이광영은 1982년 8월 5·18부상자회 결성에 참여하고 총무를 맡아 5·18 진상규명과 부상자 치료·보상,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다. 1988년 5·18부상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민주화합추진위원회의 광주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군의 기총사격을 폭로하고 전두환·노태우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증언은 2019년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어갔다. 하지만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사과하지 않았다.

가두 연설…민주화운동 투신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에게도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당시 광주 증심사 총무 소임을 맡고 있던 성연 스님은 5월 19일 진각 스님과 함께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시내에 나갔다가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하게 된다.

계엄군의 탄압으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을 정상적으로 봉행할 수 없게 되자 성연 스님은 5월 21일 증심사 신도회장단과 함께 법요식에서 나눠주려 했던 밥과 떡, 과일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 전남도청 옆 노동청 사거리에서 시위대에게 보시했다.

보시를 마치고 난 직후 계엄군은 금남로에 운집한 시민들에게 집단발포를 했으며,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전남대 병원으로 이동했다. 계엄군의 총격으로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간호사들은 헌혈을 호소했고, 그 자리에서 성연 스님과 신도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헌혈에 동참했다.

시위대의 상황이 어려워져 가던 5월 26일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한 성연 스님은 가사 장삼을 갖추고 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 올라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 이겨내자”고 연설했다. 당시엔 계엄군 첩자가 암약하고 ‘독침사건’으로 흉흉한 분위기에서 종교인은 연단에 올라가지 않았지만, 성연 스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투쟁을 외친 것이다.

성연 스님은 항쟁을 위한 불교 조직을 구성하려 했으나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을 침탈하면서 할 수 없이 광주를 떠나 부산으로 몸을 피신하게 됐다. 이후 스님은 10·27법난이 발발하고 봉선사에서 군인들에게 포승에 묶여 끌려가다가 대강백 월운 스님의 도움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성연 스님은 불교계 민주화운동에 투신하게 된다. 여익구, 서동석 등과 함께 1985년 민중불교연합(이하 민불련)을 창립하고 이념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며,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도 참여했다. 1986년 정토구현전국승가회가 창립되자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했다.

불교 교사, 학생들 일어나다

광주 지역 불자 교사와 학생들의 참여도 주목해야 한다. 광주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당시 43세)는 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로 항쟁 이전부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족의식을 함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다.

5월 19일 대동고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하고자 교문을 나서려고 하자 학생들의 생명이 걱정됐던 박 교사는 교문 앞에 누워 막았다. 이후 고향 해남으로 피신했던 박 교사는 5월 21일 해남군청 앞에서 광주서 내려온 시위대 차량 위에 올라가 주민들에게 “광주에서 우리 형제, 아들, 딸들이 계엄군들에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광주로 갑시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무장한 해남 시민군과 함께 트럭을 타고 광주로 향했고, 나주에 이르렀을 때 시민군의 트럭은 73대나 됐다. 시민군의 추대로 차량을 지휘하게 된 박 교사는 광주로 진격했으나 계엄군과 맞닥뜨려 협상 끝에 무장을 해제당했다.

이후 박 교사는 광주로 끌려와 보안대와 서부경찰서의 혹독한 취조를 겪고 결국 교직에서 쫓겨났다. 훗날 교사에 복직하게 됐으며, 민주교사실천협의회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이밖에도 관음사·증심사의 불자들과 원각사 불일학생회, 덕림사 고등학생 불자들도 5·18민주화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참고자료–〈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8–불교·원불교 편〉(5·18기념재단 刊)

“반민주적 12·3계엄, 5·18정신으로 이겨냈다”

조계종 사노위, 5·18 기념사업회
5월 16일 서울 법련사서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6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45주년 추모재를 봉행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군부에 의해 무참히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와 광주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5월 16일 서울 법련사 지장전에서 ‘광주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희생자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한 사노위원 스님들과 김용만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 서울기념사업회장, 이재수 김동수 열사 추모사업회 상임대표, 유주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추모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며 희생된 이들의 고귀한 넋을 위로하고 민주와 정의, 인권 등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이 올바르게 발현되는 세상을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특히 당시 김동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이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맞서 항거하다 희생된 일과 불교의 사회참여를 알리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이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겼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추모발언에서 ‘오월 영령들’의 넋을 두 손 모아 기렸다. ‘치유와 성장’을 강조한 스님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되새기는 또 다른 이유”라면서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 이어져 있기에 오늘 45번 째 추모재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치유와 성장의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3계엄을 언급한 스님은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5·18민주화정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시는 처참하고 무력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도움을 받은 현재가 과거에 감사를 보내고 화답하는 장엄한 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진실을 바로잡고 알리는 데 사노위는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추모재에서 스님들이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 참석 대중이 영단에 국화와 절을 올리며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서원했다. 이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위패 소전의식과 ‘오월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5·18민주화운동 종산계승을 다짐했다. 임은호 기자

전통불교영산회, 5·18영령 추모 영산대재

5월 18일 5 · 18민주묘역서

(사)전통불교영산회(회장 월인 스님, 법륜사 주지)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5월 18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5·18민주항쟁 영령추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영산대재에는 광주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광주영산재 이수자인 월인 스님, 호산 스님, 혜령 스님을 비롯해 보존회 소속 스님 30여 명이 동참해, 1980년 5월 군부의 무력 진압에 희생된 시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천도 의식을 봉행했다.



월인 스님은 “군인들의 총칼에 희생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 ‘광주 주먹밥 정신’ 기리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주먹밥 나누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해청 스님)는 5월 17일 국립5·18민주묘역에서 ‘제15회 망월동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행사는 1980년 5월 항쟁 당시 자발적으로 이어졌던 시민들의 주먹밥 나눔을 재현한 것으로, 참배객들에게 주먹밥을 나눔으로써 오월 정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는 지난 2008년 창립 이후 매년 주먹밥 나누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해모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기획실장은 “1980년 5월 광주의 상징이라면 주먹밥과 헌혈”이라며 “이는 광주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살생·소식…사찰음식 '지속가능' 화두 던지다

사찰음식, 국가무형문화유산이 되다

국내외 주목하는 음식 자리매김
문화사업단 노력 · 역할이 큰 발판
삼국시대부터 백성 아픔 함께하며
'솔잎수행식' 등으로 '구휼' 앞장
불교세시 맞춘 음식 복원이 과제



한국불교 공양 의식인 발우공양 모습.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이 지난 5월 19일 국가유산청에 의해 새롭게 국가무형유산이 됐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대중화되기 시작한 한국 사찰음식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음식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필자는 한국 불교음식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기념해 실물음식문화로서의 사찰음식을 조명하고, 실물음식의 범주를 넘어 앞으로 정립해야 할 사찰음식의 방향성과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한국 사찰음식은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 외국 대학과 단체의 초청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정관 스님은 국내보다 해외 체류 시간이 더 길 만큼 국제적인 사찰음식 행사를 이어가고 있고, 법송 스님은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Le Cordon Bleu)' 런던과 파리 캠퍼스에서 교과목으로 한국 사찰음식을 교육하고 있다. 각 사찰이나 사찰 내 사찰음식연구소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습과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사찰음식 활동이 불교 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정관 스님의 경우 국내 파인다이닝 셰프 및 외국 요리사들과 활발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스님들 또한 한식 요리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또 서울 진관사와 수원 봉녕사는 매년 대규모 사찰음식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들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요리 경연이나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강연, 학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한국 사찰음식이 국내외에서 대중화되고 활발한 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드러나지 않은 노력과 역할이 큰 발판이 됐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문화사업단은 스님들을 위한 전문 사찰음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일반인을 위한 대중강습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 사찰음식은 우리 역사와 더불어 한국 음식의 기저인 장(醬)과 김치, 전통 시대에 특별한 음식으로 여겨진 두부, 국수, 유밀과(전통한과의 일종) 등과 일상식으로서 채소를 기반으로 한 국과 나물 등 한국음식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정식 지정된 현시점에도 실물음식이나 문화로서 사찰음식에 대한 학문적 정립과 체계화는 여전히 아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 사찰음식의 역사는 불교의 전래와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삼국·고려·조선시대는 사찰음식의 역할과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시기들이다.

〈삼국유사〉 '김현감호' 조(條)는 김현과 호랑이 낭자와의 종을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와 더불어 신라 최초의 사찰이었던 흥륜사의 장(醬)을 통해 사찰과 재가자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즉 사찰의 장은 스님들만의 것이 아니라 재가자와 함께 나누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나타난다. '호랑이가 해친 사람의 상처는 흥륜사 장을 바르면 나을 수 있다'는 언급에도 사찰의 장이 일반 사회 재가자의 필요에 응답하는 물품임을 보여준다.

한국 사찰의 음식 공유 정신은 고려시대에 들어 사회적으로 더욱 확장된 모습으로 역사서나 불교 문집, 금석문 등에 등장한다. 고려 사찰들은 기근이나 흉년 등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구휼 정책의 실행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 사찰이라는 넓은 공간과 음식 준비 등에 숙달된 다수의 스님, 그리고 곡식과 장, 대형 철확(鐵鑊, 쇠솥) 등 음식과 관련한 도구와 식재료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 사찰은 국가 구휼 정책의 실행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찰의 곳간을 털어 일상적으로 배고픈 백성과 여행자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는 전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전 시대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조선시대에도 사찰은 음식 관련 지식을 일반 사회와 공유하며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의 생명을 건졌다. 특히 중국, 일본의 불교 전통과 큰 차이를 보이는 조선 사찰의 '솔잎수행식'에 관한 축적된 노하우는 기근이나 흉년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백성의 생존을 위한 구명책 역할을 했다. 1541년 간행된 〈충주구황절요〉는 조선시대 스님들의 수행식인 솔잎수행식이 극심한 기근과 흉년 시에 일반 백성의 생명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도 불교사찰의 솔잎수행식 레시피가 구휼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사대부 문집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찰의 음식문화는 사찰의 발달된 음식 제조법이 일반 사회로 확장, 전파되어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고려시대에 처음 언급이 보이는 만두, 국수, 두부 등과 같은 음식은 스님들이 재가 사대부들과 관리들에게 주로 선물하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한다. 즉 고려 불교사찰의 앞선 음식문화가 일반 사회에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 음식은 조선시대에 들어 일반 사회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찰음식의 한국 음식사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기저 음식인 장과 김치 문화에서 더욱 뚜렷하다. 통일신라시대 남원 길상사 장고(醬庫) 유적, 삼척 흥전리사지 장고 유적, 경주 성건동 항아리 유적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라시대 사찰의 대규모 장류 문화의 모습과 고려 사찰의 대규모 구휼 활동에서 파악되는 사찰 장류의 역할, 조선 팔도 공공용 장류의 대표적 제조자의 역할을 했던 조선 팔도 불교사찰의 한국 장류에 대한 역할은 한국음식사에서 어떤 집단도 대신하지 못한 역할이었다.

김치에 대한 역할도 이에 못지않다. 수백 명의 상주 인원을 가진 삼국·고려시대 사찰의 김치 문화는 보은 법주사 김치 항아리인 석옹이나 석주 등의 유물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일상적인 음식 이외에도 유밀과, 떡, 강정, 단과자 등 특별식 음식문화에 있어서도 한국사에서 사찰음식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도 즐겨 먹는 이들 음식의 기원은 불교사찰이다. 고려시대 역사서에서는 성행하다 못해 과도하기까지 한 고려시대 유밀과 문화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고려 불교사찰의 유밀과와 음식고임문화는 수많은 유가 사대부들의 결사적 반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조선 사회의 대표적인 연회음식이자 고급음식으로 계승되었다. 이전 시대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조선 불교사찰의 떡, 다식, 단과자(사탕 포함) 음식문화도 여전히 계승되었다. 불교의례에서 떡은 빠질 수 없는 음식으로, 조선시대 내내 만들어졌고 조선 중기 최립(崔岦, 1539~1612)의 시문집인 〈간이집(簡易集)〉에는 사찰 주지 스님 방에서 단과자를 두고 다투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전해지고 있다.

오늘날 불교사찰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세시 절기와 그 음식문화 그리고 음력이라는 시간적 시스템을 가장 잘 유지, 계승해 나가고 있다. 다만, 전통시대 불교사찰은 1년의 세시 절기에 맞는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현대에도 그 전통을 일부 계승하고 있으나 상실되거나 잊힌 것들도 있다.

정월 설날·대보름·단오·백중·중양절·동지·섣달그믐 등 불교세시와 그 음식문화는 현대에 되살려 복원될 필요가 있는 사찰음식문화의 하나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부산 범어사가 부처님오신날의 세시 음식인 느티떡을 전승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나, 많은 불교세시나 그 음식문화가 잊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교세시와 그 사찰음식문화가 조계종 차원에서 먼저 복원될 필요가 있다.

불교음식이 일반 한식과 가장 차별되는 지점은 실물음식 그 자체보다는 불교가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 내용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사찰음식 활동의 주 내용은 실물음식 요리에 두어져 있다. 불교 실물음식을 국내외적으로 대중화시킨 것은 그 자체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사찰음식은 실물음식에 국한되지 않는 종교철학적 의미와 역사문화적 내용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또 채식으로 상징되는 사찰음식은 현대의 주요한 사회적 이슈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러한 이슈를 선도할 만한 풍부한 내용과 문헌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불살생과 육식 과도의 현시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채식, 음식물 쓰레기 등 생태적 이슈와 뗄 수 없는 관계인 발우공양, 소식(小食), 자족(自足)의 음식에 대한 태도 등 사찰음식은 실물음식 그 너머의 음식에 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자연과 인간과 음식문화에 제시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과 음식의 건강한 관계 설정과 회복에 대한 논의도 불교경전은 풍부하게는 제시하고 있다. 한국 사찰음식의 활동은 실물음식으로서의 사찰음식의 영역 뿐만 아니라 실물음식 너머의 영역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과 내용을 한국 사회에 제시해야 하는 소임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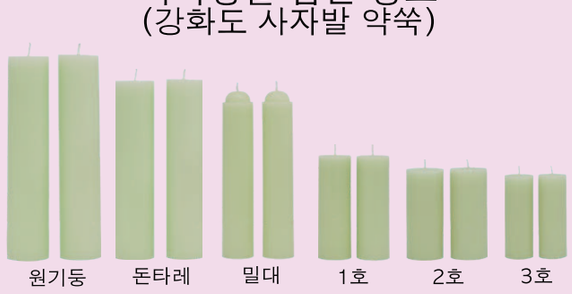


공만식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음식문화학 담당 대우교수

해광산업
해광양초는 특별한 양초로 양초에 정성과 향을 담습니다
"자연친화적향의 향기가 법당에 스며들다"

침향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약쑥향을 담은 양초 (강화도 사자발 약쑥)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PC 팜 원통초
대 중 소


연꽃향을 담은 양초

육각 원기둥(중) 원기중(소) 1호

밀랍향을 담은 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1호 2호 3호

밀납향을 담은 초
대 중 소


해광산업 주문전화번호 031-333-0242, 010-5848-0189

(구)삼환양초가
중국 대련에서 40년 기술 노하우를
현지 공장에 전수하여 관리 생산한
최고급 중국산 대련양초를 자신있게 소개합니다.

WWW.SHCANDLE.COM
NAVER 삼환양초

원기둥 돈타레 밀대 쌍대
*유통 마진 없이 소비자 여러분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삼환양초 주문전화번호
031-337-0243, 010-2308-0189

“화엄경 완독, 중생 위한 회향의 실천”

해인사, 5월 17일 법계마당서
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
3만여 사부대중 1170일간 정진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17일 봉행한 ‘대방광불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에서 “1170일간의 정진은 화엄경의 세계를 삶으로 되새기는 수행의 여정이었다”고 의미를 밝혔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5월 17일 경내 법계마당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제1차 완독 회향 대법회’를 봉행했다. 3년 3개월 동안 이어진 〈화엄경〉 독송 수행의 원만한 회향을 축하하는 이날 법회에는 무관 대종사, 부주지 학암 스님과 대중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1170일 동안 쉼 없이 이어온 〈화엄경〉 독송은 단순한 낭송이 아니라 나와 이웃, 중생 모두를 위한 회향의 실천이었다”며 “3만여 명이 동참한 이 수행은 성불을 향한 대승의 정진이자, 육도 중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한 장엄한 공덕행”이라고 의미를 새겼다. 이어 “〈화엄경〉 독송은 십바라밀과 보현행원을 몸소 실천한 수행”이라며 “몸과 마음으로 보시하고 인욕하며 정진할 때 회향의 공덕이 원만하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혜일 스님은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판각 불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며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천년불사로, 환경 위기의 시대에 부처님의 진리를 새기기 위한 수행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차기 〈화엄경〉 완독 법회에도 불자들의 지속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관 대종사는 〈화엄경〉 ‘입법계품’ 중심의 회향 법문에서 선재동자의 53선지식 친견 여정을 언급하며 “바라밀 수행은 곧 부처의 길로 향하는 정진이며, 초발심이 곧 정각이라는 화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고 법문했다. 이어 “세상의 티끌처럼 수많은 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큰 바닷물도 남김없이 마시며, 허공을 다 계산하고 바람을 얽어맬 수 있을지라도 부처님의 공덕은 다 설명할 수 없다”며 부처님 공덕의 수승함을 설하고 이를 닮아가려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당부했다.

동참자들은 최태임 불자가 대표로 낭독한 회향 발원문을 통해 “〈화엄경〉 독송의 공덕이 부모와 조상의 극락왕생, 병고에 시달리는 이들의 건강, 지혜를 구하는 이들의 총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 공덕이 지혜의 세상을 여는 밑거름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인사는 이날 심원사 응관 스님에게 공로패를, 서울 금강자비회와 부산 금강정진회, 대전 귀빈불자회, 성산 보현회, 경산 수정사, 부산 장금선원 등 6개 단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아울러 코끼리행복문화센터 소속 개인 4명에게 2백만 원의 자비나눔기탁금을 전달했다.

동명불원, 산불 피해 주민에 구호물품 전달

5월 14일 안동실내체육관서 현지 요청 품목 지원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원장 원순 스님)은 5월 14일 경북 안동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동명불원 신도회 및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현지 재난종합센터에서 요청한 품목을 중심으로 구호물품을 마련했다. 지원 물품은 백미 10kg 200포를 비롯해 믹스커피, 휴지, 주방세제, 라면, 42인치 TV 등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동명불원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위로와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도성 스님 문도회, 산불 기금 전달

5월 19일 산청군에 천만 원 기탁
“큰스님 원력 자비 나눔 회향”



영공당 도성 스님 문도회가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 복구를 위해 자비 성금을 전달하며, 도성 스님의 49재를 회향하고 가르침을 기념했다.

문도회는 5월 19일 산청군청을 방문해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1000만 원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전달식에는 종범 스님(산청 심적사 주지)을 비롯해 유경 스님(부산 석탑사 주지), 유진 스님(태종사 주지)이 참석했으며, 이승화 산청군수와 정영철 부군수도 함께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심적사 주지 종범 스님은 “세수 100세가 넘어서도 건강하셨던 은사 스님께서는 지난해 산청의 자연과 역사에 깊이 감동하시며 심적사에 두 차례나 방문하셨다”며 “49재 회향을 맞아 스님의 가르침을 더 널리 나누고자 문도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전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덕민 대종사, 전통 강맥 전수

5월 30일 기림사서 대법회
두 번째 전강, 후학 7명에



현대 한국불교 대강백 덕민 대종사가 후학 7명에게 전통 강맥을 전수한다.

덕민 대종사〈사진〉는 5월 30일 오전 11시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에서 열리는 ‘전법전강(傳法傳講) 대법회’에서 연광 스님(송광사), 석산 스님(범어사), 각전 스님(범어사), 해등 스님(월정사), 능주 스님(범어사), 현학 스님(범어사), 명신 스님(동화사)에게 강맥을 전한다. 조계종의 대표적 강맥인 고봉가풍(高峯家風)을 계승한 덕민 대종사의 두 번째 전강(傳講)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덕민 대종사는 석전 영호 대종사로부터 고봉 태수 대종사에게 이어진 강맥을 우룡 종한 대종사를 통해 전수받았고, 고산 혜원 대종사에게서 율맥(律脈)을 이어받았다.

스님은 1956년 13세에 우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청암사 강원을 졸업하고, 합천 태동고전연구원에서 15년간 한학을 수학했다. 청암사, 법주사, 쌍계사, 범어사, 불국사 등 제방 강원에서 약 40년간 강석을 펼쳐왔다.

이날 법회는 대강백 무비스님과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증명하며,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과 종단 강백, 고봉문도 스님들이 대거 동참할 예정이다.

기림사는 “전강법회는 한국불교의 가르침과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잇기 위한 역사적 전승의 장(場)”이라며 “강맥 전수는 곧 불교 교육과 수행의 뿌리를 잇는 일이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민추본,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 개최

5월 29일~31일, 부산 안국선원 등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교평화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아카데미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 시원암과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에서 진행되며,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운영된다.

민추본 부산경남본부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통일과 평화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을 확대하고, 지역 스님과 재가불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아카데미는 총 6개의 강좌와 현장 견학으로 진행된다. 김진환 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주는 협력의 가치와 미래 비전’, 김일한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북한 농업을 중심으로 본 기후위기와 남북협력의 과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이 ‘북한 보건의료 동향으로 본 남북 공동대응의 과제’, 장창준 한신대학교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반도 국제정세 변화와 전망’, 이연희 사단법인 평화너머 공동대표가 ‘적대국가 선언 이후 남북관계 및 민간교류협력 재개 전망’, 이창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외래교수가 ‘DMZ의 역사와 가치’를 주제로 강의한다. 31일에는 부산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견학한다.

민추본은 “분단으로 인한 혐오와 갈등 그리고 남남갈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지금, 이번 아카데미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교계가 평화를 견인하는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통해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카데미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 원오사(주지 정관 스님)가 후원한다. 참가비 무료. (02)720-0531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시대 요구에 호응한 불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硏, 6월 8일 통도사서
대만 · 티베트 · 일본 불교 조명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은 6월 8일 오후 1시 영축총림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시대적 요구에 호응한 불교는 무엇이 다른가?’를 주제로 2025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대만불교 4대 종문의 발달과 인간불교 △티베트불교의 세계화 연구 △일본 정토진종 교단의 발전과 과제 발표가 진행된다. 각 발표 후에는 강경구·양승규·구자성 교수의 논평 및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대만, 티베트, 일본 등은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불교 본연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며 신도층을 확대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그러한 흐름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1차 완판 기념 재출시 소량 한정판 금값 상승으로 품절 대기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6,560,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230,000원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립운동 선지식 가르침 기립니다”

조계종 · 독립기념관, 광복 80주년 추모위령재

두 기관 공동주최 첫 행사
전통등 전시 항일불교 조명
다큐 뮤지컬 ‘비스독’ 공연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독립기념관(관장 김형석)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 천안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가 5월 17일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 1층 불굴의 한국인상 조형물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이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첫 공식 추모 행사로, 위령재와 전통등 전시, 특별 강연, 다큐 뮤지컬 ‘비·스·독(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 공연이 펼쳐졌다.

합동 위령재는 조계종 사회국장 덕제 스님의 사회와 어산종장 덕림 스님의 집전 아래 지장불공과 화엄시식으로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진경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주와 자유를 지키려 한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있었다”며 “돌아가신 영가들께 지극한 예를 올리고 그 원력과 공덕이 극락왕생의 인연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각원사 주지 지산 대원 대종사는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모든 인간의 행복”이라며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공포 속에서도 조국 광복의 결연한 의지로 일어섰던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백용성 스님과 한용운 스님을 비롯한 민족대표 33인을 한 분씩 호명하며 종파를 초월한 항일운동의 연대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병천 아우내장터에서 순국한 유관순 열사와 이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영령들에게도 경의를 표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언 스님(천태종 만수사 주지)은 발원문을 통해 “조국의 자주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극락왕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조계종과 독립기념관이 5월 17일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 독립운동가 추모 합동위령재’를 봉행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불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는 이 자리가 우리 사회의 화쟁정신을 통해 통합과 평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장인 겨레의집은 수덕사 대웅전을 본떠 조성된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불교계 추모행사의 상징성을 더했다. 행사장 내부에는 아기부처상, 사명대사, 석가탑, 연꽃 등을 모티브로 한 전통등 9점이 설치되어 호국불교 정신과 평화를 염원했다. 전통등은 불교의 상징성과 독립운동 정신을 동시에 담아낸 시각적 장치로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위령재 후에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불교’를 주제로 신용철 경희대 명예교수가 ‘운허 스님의 교육과 독립운동’에 관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독립기념관 수장고에 보관된 불교 관련 독립운동 자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예술로 형상화한 다큐 뮤지컬 ‘비·스·독’이 공연됐다.

전주 금선암 혜융 스님 초청법회

5월 18일 극락보전서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스님)은 5월 18일 극락보전에서 중앙승가대학교 수행관장 혜융 스님을 초청해 일요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을 비롯해 혜융 스님, 불지선원 주지 승원 스님과 안준아 금선암 신도회장을 포함한 금선암과 불지선원 신도 70여 명이 동참했다.

법문에 나선 혜융 스님은 “타인을 위한 선행은 곧 해탈의 길이며, 자기만을 위한 집착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며 “자비희사·사무량심 수행을 일상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곧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운사의 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다녀왔다”며 “혜융 스님의 말씀처럼 자비희사·사무량심 수행으로 요익중생의 선업을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보림사 ‘명상과 문학의 밤’

5월 17~18일…정지아 작가 강의도



정읍 보림사(주지 종진 스님)가 문학을 통해 마음을 돌아보는 ‘명상과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사진〉

5월 17~18일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명상과 문학의 밤’ 행사는 보림사 주지 종진 스님의 명상 강의, 정지아 작가의 강의와 대담, 새벽 명상, 걷기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정읍 보림사와 이은심리상담소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명상 수행과 작가와의 대담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문학적 성찰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기획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참가자는 “명상을 통해 내면의 소리를 들었고, 작가님의 이야기에서 공감을 얻었다”며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특별한 밤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정읍 보림사는 다양한 명상 수행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좌를 통해 지역 불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마음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찾아가는 마을 법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정사,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

5월 21일 개원식…삼보 대종사 원력 결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5월 21일 승려복지시설 ‘승가림’ 개원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개원은 수행자의 노후를 승가공동체인 교구본사가 책임진다는 철학 아래 추진된 승려복지 실천의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법흥사 주지 대웅 삼보 대종사를 비롯해 교구 스님들, 사부대중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번에 개원한 승가림은 제4교구본사 소속 스님과 교구 발전에 공헌한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과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념 스님의 발의로 지난 2023년 본격 추진됐으며, 삼보 스님의 원력과 후원이 더해져 결실을 맺었다. 총사업비 36억 원 가운데 30억 원은 삼보 대종사의 희사금으로 나머지 6억 원은 월정사 자부담으로 충당됐다. 삼보 대종사는 “정념 주지 스님의 혜안과 실천력으로 승가원이 완공되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수행과 보살행에 정진할 수 있도록 승려복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념 스님은 “삼보 대종사의 원력은 수행자의 삶을 공동체가 책임진다는 실천적 선언이었다”며 “승가림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 어른스님들이 수행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자 한국불교의 승려복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수덕사, 경허 선사 113주기 다례재

5월 21일 대웅전서 봉행



한국불교 중흥조인 경허 성우 대선사의 열반 113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열렸다.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는 5월 21일 대웅전에서 경허 성우 선사 열반 113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다례재에는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 공덕사 회주 혜연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 해인사 원로 석후 스님과 도오 스님, 마곡사 전 주지 법룡 스님을 비롯해 본말사 스님들과 불자 등 사부대중이 자리를 함께했다. 다례재의 종사영반은 지만 스님이 법주를 맡고, 흥법 스님이 바라지를 맡아 의식을 이끌었다.

설정 대종사는 추모사에서 “경허 스님은 학문적으로는 뛰어난 기억력과 통찰을 지닌 분이었지만,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으로 수행의 길을 걸었다”며 “스님이 역병이 돌던 마전리 마을에서 두 달 동안 머물며 곡식과 약을 구해 이재민을 도왔다는 지역 주민의 증언이 있다. 선(禪)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경허 스님의 ‘참선곡’ 탄생 배경도 언급했다. 설정 스님은 “경허 스님이 해우소 앞에서 사미에게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게 한 것이 참선곡이며, 문장 구조와 사상 모두 뛰어난 수행문헌으로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월정사, 어산작법학교 학인스님에 장학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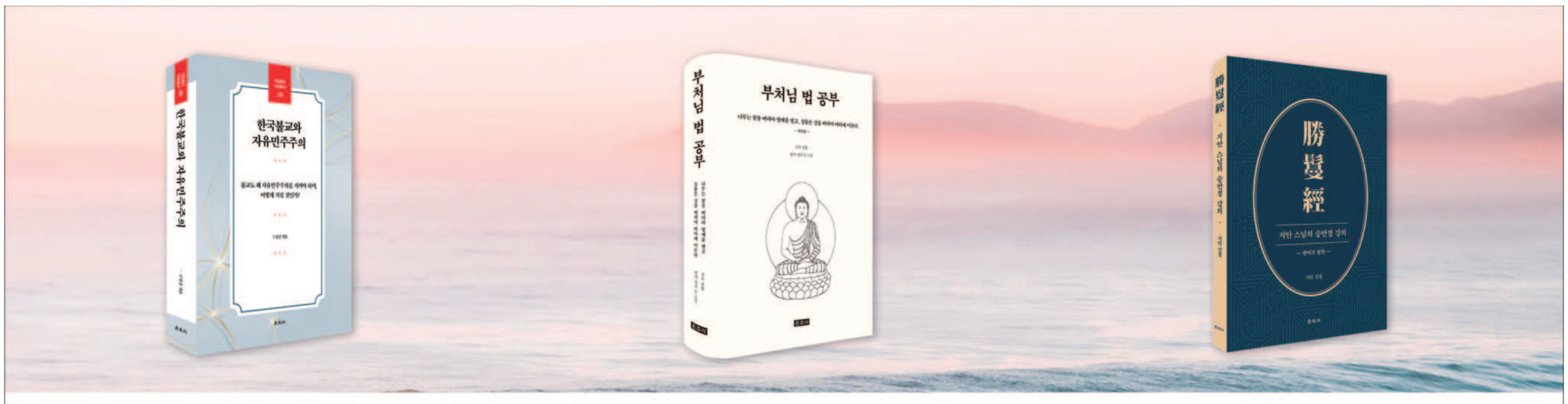
5월 19일, 1250만원 전달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전통 불교의례 계승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정성을 보탰다.〈사진〉

월정사 신행국 실장 혜묵 스님과 금강경 봉찬기도회 소속 스님·불자 등은 5월 19일 서울 조계종 어산작법학교를 찾아 장학금 1250만원을 전달했다. 기금은 전통 불교의식인 어산작법 계승을 위해 배움의 길에 있는 학인스님을 지원하고자 월정사 스님들과 신도들의 신행단체인 금강경 봉찬기도회가 마련했다.

혜묵 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도 어산작법을 배우려는 학인스님들의 발심과 노력은 불교문화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희망”이라며 “모든 수행자가 정성껏 정진해 시방세계가 청정함으로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불교도, 한국사회에서의 역할은?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과잉에 포획된 시대에, 불교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불교도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구상진 저/신국판/600쪽/값 33,000원

부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부처님 법 공부
석천사 진옥 스님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초전법륜의 사성제 법문과 중전법륜의 무상 법문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교리들을 알기 쉽게 설하였다.
진옥 설법, 범여 정리 및 교정/신국판양장/440쪽/값 28,000원

대승불교의 근간이 되는 경전!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의
『승만경』은 재가자(왕비)인 승만의 발원과 설법을 담고 있는 경전으로, 여래장과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굳은 신심을 드러내 보이며, 지안 스님이 간략한 해설을 붙였다.
지안 강설/국판변형/172쪽/값 13,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1~5/2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비 오니 봄날이다	동은	조계종출판사
2	서른즈음 꼭 읽어야 할 금강경	정운	민족사
3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윤청화/일지	민족사
4	이뭐꼬	퇴옹성철	장경각
5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6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	원영	불광출판사
7	고엔카의 위빳사나 10일코스	윌리엄 하트/담마 코리	김영사
8	우리말 법화경	혜조	운주사
9	정원예찬	현진	담앤북스
10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자현	담앤북스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거룩한 불편:녹색전환사회를 위한 지혜	유정길	모과나무
2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부처님의 생애(+불교입문+불교개설/종단본3권세트)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진짜 나를 찾아라(맑고향기롭게30주년기념) 미공개 강연록*양장	법정	샘터사
5	좋은 말씀:법정스님 법문집	법정/맑고향기롭게	시공사
6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법정의 산중편지	법정/박성직 엮음	책읽는섬
7	나를 더 나답게:삶의 주인이 되는 마음습관	원빈	붓다스쿨
8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람림)	초펠 편역/게시 소남	하늘호수
9	동화로 읽는 부처님 마음	오해균/김승연 그림	운주사
10	백유경(큰글씨 한글경전)	경전연구모임 편	불교시대사

불교의례 '낙화법' 학술적 조명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

태경 스님 외 지음

경인문화사

2만8000원

세종시 무형유산 '낙화법' 연구 성과
논문 5편–염송의궤 절차 별책 수록
한글 표기법 전환하고 표준안 확정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유산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이 출간됐다. 사진은 세종 영평사가 올해 2월 개최한 제10회 낙화법 행사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낙화법과 수구즉득다라니〉는 2024년 2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된 '세종 불교 낙화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모은 책이다. 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이사장 환성 스님, 영평사 주지)가 2024년 11월 개최한 제1차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해 담고, 별책으로 올해 5월 5일 제정한 '세종 불교 낙화법' 표준안을 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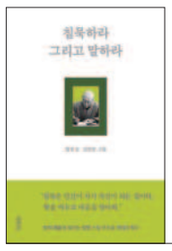
낙화(落火)란 한지로 만든 봉지에 숯을 넣어 높이 매달고, 불을 붙여 떨어지는 불빛을 보는 것을 말한다. 민간에서 행하는 낙화놀이와 달리 낙화법은 사찰에서 낙화를 태우며 재앙 소멸과 복을 기원하던 불교 의례로 조선시대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

최근 경남 함안, 전북 무주 등 일부 지역에서 축제 형태로 낙화놀이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찰에서의 낙화법은 세종 영평사에서 전해져 오는 것이 유일하다. 영평사는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대진언집〉에 그 절차가 기록된 것을 근거로 낙화법을 설행해 왔으며, 세미나 등을 통해 낙화법의 역사적·학술적 근거를 밝히고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이끌어 왔다.

세종시불교낙화법보존회는 "1차 학술세미나의 가장 큰 성과는 낙화법을 설행할 때 염송하는 '수구즉득다라니'의 정본을 정한 것"이라며 "영평사 소장본 〈오대진언집〉에 15세기 훈민정음 표기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수구즉득다라니'를 현대 한글 표기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표준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낙화법 참가 대중들이 '수구즉득다라니'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책에는 △불교의례 낙화법 용어의 통일 연구(태경 스님, 조계종 의제실무위원) △오대진언집 판본에 관한 연구(정왕근,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수구즉득다라니에 나타난 판테온과 신위 연구(강향숙,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수구즉득다라니 한글 표기의 현대화 방안(이준환,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오대진언집〉 '영험약초'의 서사 재편과 수구다라니 신앙(오대혁, 동국대) 논문과 학술세미나 경과 및 회의록, 보도자료 등이 실려 있다.

말의 본질을 성찰하다



침묵하라 그리고 말하라

법정 스님 글 / 김인중 그림

열림원 / 1만9000원

가려 엮은 법정 스님 사유의 글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 작품 수록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 되는 길"

시대를 초월해 '무소유'의 가르침을 전하는 법정 스님의 글에 '빛의 화가' 김인중 신부의 미공개 작품 30점을 더한 〈침묵하라 그리고 말하라〉가 출간됐다.

역설적인 이 책의 제목은 '말'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말 이전의 고요함과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게 한다. 침묵을 통해 삶을 돌아보고, 단순한 삶을 실천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인간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당부이기도 하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도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법정 스님의 깊은 사유와 그 사유를 닮은 김인중 신부의 그림은 우리에게 '말없이 정진하는 태도'로 정신적인 가치와 참된 행복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새롭게 옮기고 풀이한 〈선가귀감〉



수행자의 거울 –선가귀감

청허 휴정 지음

무명 역해

뜻밖

1만6000원

"경을 보되 만약 자기를 향해 공부를 지어가지 않으면 비록 만 권의 대장경을 전부 본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다."

선 수행의 교과서로 여겨지는 〈선가귀감〉을 새롭게 번역했다. 역해를 맡은 이는 고전 번역 전문가로, 현재는 어두움에 가려져 있지만 수행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란 뜻에서 '무명(無明)'이란 필명을 쓰고 있다. 김상인 전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은 추천사에서 "과거에 무심히 읽어 보았던 〈선가귀감〉을 새로이 읽으면서 번역자가 고민하고 시도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며 "선이나 명상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기경전으로 읽는 붓다의 생애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

마쓰나미 고도 지음

최성호 옮김

바다출판사

1만7800원

〈아함경〉, 〈법구경〉 등 초기경전에서 고른 108편의 경구를 씨줄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날줄로 엮은 책이다. 2500여 년 전, 청년 싯다르타가 어떤 상황에서 출가를 결심하고 깨달음을 얻었으며 가르침을 전했는지를 상세히 소개한다. 문태준 시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자상하고 구체적인데,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일화와 함께 잘 드러나 있다"고 평했다.

저자는 일본 스님이자 불교학자로, 하와이와 미국 등에서 20여 년간 불교 연구와 포교에 매진했다.

일상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백팔번뇌 이야기〉, 〈불교 명언 365일〉 등을 펴냈다.

다시 펴낸 자현 스님의 감성 시집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다

자현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불교계 대표 학자로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불교를 대중에 알리고 있는 자현 스님(한국불교학회장)이 2000년 출간한 시집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듬고 감각적인 사진을 덧붙여 다시 펴냈다. 지난해 마음을 울리는 문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에 이은 두 번째 감성 법문집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언가 희생의 대가여서는 안 된다. 온전한 행복이란, 그 자체로 만족스럽고 흐뭇함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바쁘고 치열한 삶에 익숙한 우리에게 "뜻이 높으면 존재는 고요하고, 생각이 순일하면 마음은 평화로운 법"이라고 말하는 스님은 "부디 질러감을 탐하지 말고 대도행(大道行)을 떨치라"고 당부한다.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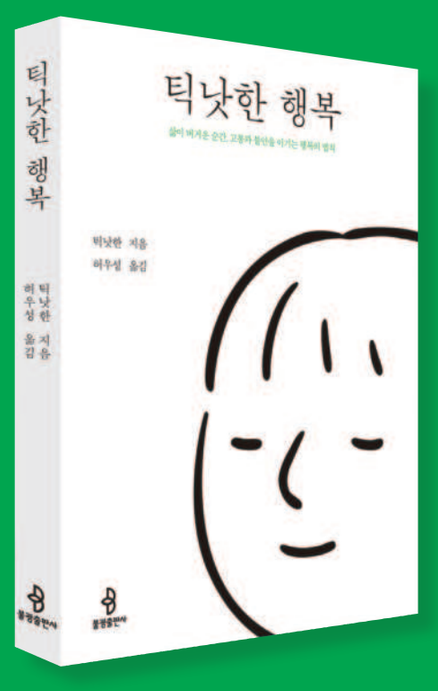
틱낫한 행복

삶이 버거운 순간, 고통과 불안을 이기는 행복의 법칙

틱낫한 지음 | 허우성 옮김 | 248쪽 | 18,000원



틱낫한 스님이 친절하게 이끌어주는
'지금 당장,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행복의 법칙!



"우리는 행복은 미래에나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_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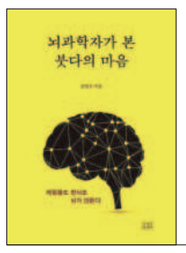
★★★★★ 아마존 리뷰 ★★★★★

"저는 25년째 명상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틱낫한 스님은 마음챙김 수행을 누구나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소개해요. 이 책은 스님의 모든 수행법을 담고 있고, 명상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가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틱낫한 스님의 글은 단순하게 쓰였지만, 삶과 의미와 마음챙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앞으로도 몇 번이고 이 책을 다시 읽고 또 읽게 될 것 같아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깨달음도 번뇌도 뇌가 만든다”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
문일수 지음
조계종출판사 / 2만2000원

뇌과학자가 설명하는 붓다의 가르침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 과학적 증명
“번뇌의 불꽃 끄면 깨달은 자, 부처”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연구에 의하면 대략 10초마다 마음이 바뀐다고 하니, 하루 16시간 깨어 있다고 하면 5760번 바뀌는 셈이다. 부처님은 이러한 마음의 속성을 원숭이가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것에 비유해 ‘마음 원숭이[心猿, 심원]’라고 칭했다. 우리 마음의 정체는 무엇이고,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 원숭이’를 잠재웠을까?

〈뇌과학자가 본 붓다의 마음〉은 불교 수행으로 마음을 닦는 뇌신경과학자 문일수 교수(동국대 의대 명예교수)가 불교의 가르침을 뇌과학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와 ‘뇌과학’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하기 위해, 저자는 초기불교부터 유식불교까지 관련 서적을 샅샅이 찾아 읽었다. 그런 다음 자신이 평생 공부한 뇌과학과 연결해 ‘중학생도 이해할 만한’ 언어로 다듬었다.

“불교를 잘 몰라도, 뇌과학에 문외한이어도 이 책을 읽으면 괴로움의 발생 원인과 소멸 방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과정을 자신도 모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자신감은 바로 이런 꼼꼼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아인슈타인은 일찍이 현대물리학의 중요한 개념인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과 공(空)사상으로 설명하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 그 자체가 과학”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저자에게는 “불교는 뇌과학 그 자체”였다. 불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음공부이고, 이 마음을 다루는 것이 바로 뇌이기 때문이다.

“왜 어려운 뇌과학으로 불교를 설명하느냐”는 질문에 저자는 “첫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수행의 관점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불성의 기반인 전전두엽을 갖고 있기에 이를 잘 계발하여 타오르는 번뇌의 불꽃을 끄면 ‘깨달은 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1부 ‘왜 인간의 마음은 배회할까’는 ‘나는 무엇일까’, ‘자아는 어떻게 생성될까’ 등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뇌과학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2부 ‘마음공간의 구조’는 오온(五蘊)과 마음을 만드는 6가지 알음알이[六識, 육식]를 뇌과학으로 알아본다. 또 알음알이가 일어나는 마음공간의 거울[意根, 의근]과 거기에 맺히는 상, 떠오르는 의식 그리고 마음공간 전체를 알아차림하는 싸띠(Sata)에 대한 가르침을 뇌과학으로 설명한다.

3부 ‘인식과정을 해부한다’에서는 인식대상을 인식대상을 받아들이는 오감문(五感門)과 의문(意門), 대상을 인식하기 위해 차례로 지나가는 17가지의 마음(17찰나설), 인식과정을 벗어난 존재지속심(bhavaṅga, 바왕가)을 뇌과학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4부 ‘뇌과학은 수행을 어떻게 돕는가’에서는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맑고 평온한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과 싸띠 수행이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본다.

강봉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뇌과학자 문일수 교수는 부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현대과학이 밝혀낸 뇌의 작동원리로 매우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고 추천사를 썼다.

저자인 문일수 교수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해부학 교수로 30여 년간 후학을 지도했다. 현재 동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이며 뮬라상가 싸띠아라마의 싸띠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불교 관련 저서로 〈오온과 전오식〉, 〈의근과 의식〉, 〈붓다의 깨달음과 뇌과학〉이 있다.

〈천수경〉 독송으로 하는 선명상



선명상과 함께하는 천수경 수행의 길
덕운 스님 지음
청류 / 2만5000원

〈천수경〉 핵심 풀고 수행으로 안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가 선명상 핵심
“경전 독송하며 내면의 깊은 고요 체험”

불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독송해 봤을 〈천수경〉의 핵심 가르침을 풀이하고, 선명상 실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선명상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덕운 스님(서울 충정사 주지·사진)이 〈천수경〉 수행을 시작하려는 초심자를 위해 펴냈다.

덕운 스님은 “〈천수경〉은 단순히 복을 빌기 위한 주문이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깊은 수행법이자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짧지만 명료한 구절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어, 반복해서 독송할수록 마음 깊이 새겨지며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천수경〉은 자비, 지혜, 참회, 발원이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압축해 담고 있어, 독송 자체가 곧 수행이 된다. 덕운 스님은 “〈천수경〉의 깊은 뜻과 수행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독송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실천법이 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친숙하고 중요한 경전이지만, 막상 ‘수행’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스님은 하루 중 편안한 시간을 골라 잠깐이라도 〈천수경〉을 독송하고, 빠르게 읽기보다 문장과 진언 하나하나의 의미를 찬찬히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독송을 마친 후에는 조용히 앉아 오늘 수행한 공덕을 스스로 돌아보며,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회향의 마음을 가져보라고 말한다. 수행하며 느낀 소소한 감정이나 생각을 간단히 적어두어, 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책에서는 〈천수경〉의 의미를 쉽게 풀이하고 진언과 다라니의 해석, 수행법, 실천방법을 설명한다. QR코드로 유튜브 강의도 들을 수 있다. 덕운 스님은 “선명상은 잡념과 번뇌를 내려놓고, 우리의 본래 맑고 밝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라며 “〈천수경〉을 독송하면 자연스럽게 선명상의 핵심인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덕운 스님은 통도사 강원, 해인사 율원,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용주사 교무과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과 기획실 감사국장을 거쳐 현재 호법국장 소임을 맡고 있다. 서울 충정사 주지로 생명존중 캠페인 ‘미앤펫(me and pet)’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수행법을 연구, 실천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틱낫한 스님의 50가지 마음챙김



틱낫한행복
틱낫한 지음 / 허우성 번역
불광출판사 / 1만8000원

일상에서 실천할 명상법
마음챙김 체조 일러스트도

“걷기 명상은 그저 걷기를 즐기기 위해 걷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도착하기 위해 걷지 않는 것, 그것이 기술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프라니히타(apraṇihita)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 없음’이나 ‘목적 없음’이라는 의미인데, 자기 앞에 무엇을 두고 뒤쫓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걷기 명상을 할 때 이런 정신으로 걷습니다.”

세계적인 불교지도자이자 평화인권운동가인 틱낫한 스님은 1967년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책 〈베트남: 불바다의 연꽃(Vietnam: Lotus in a Sea of Fire)〉을 출간한 이후 2022년 입적하기 전까지 많은 이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글을 꾸준히 쓰고 출간했다. 스님이 쓴 책은 명상과 마음챙김, 참여불교, 시, 동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00권이 넘고, 국내에 번역된 책도 30여 권에 달한다.

〈틱낫한 행복〉은 그간 스님이 소개한 명상법을 한 권에 담은 책이다. 밥을 먹고 걷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수행할 수 있는 명상법 50가지를 소개한다. 틱낫한 스님만의 다정다감한 문체와 간략하고 명쾌한 지침으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출간 20년 만에 국내에 소개되는 만큼, 플럼빌리지의 꼼꼼한 검토를 거쳐 그간 수정된 명상법을 반영하고, 마음챙김 체조를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를 추가했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틱낫한 스님은 16세에 출가해 24세 무렵 베트남 최대 불교연구센터인 인꽝(An Quang) 불교연구원을 설립했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 조국에서 추방됐으며 전 세계를 돌며 비폭력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다. 프랑스에 명상공동체 플럼빌리지를 세우는 등 서구에 마음 수련과 명상의 중요성을 전파했다.

여수령 기자

부처님이 탄생하는 순간, 腹藏
그 비밀의 문이 열린다



부처님을 예경의 대상으로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
불상은 어떻게 신성한 존재가 되는가?

복장 의식과 점안 의식
그 신비로운 절차의 모든 것을 밝히다.
단순한 미술품이 부처님이 되기까지
타임캡슐처럼 봉안된 불복장 속
당대 문명의 결정체를 만나다.

佛

불복장의 비밀
불교의식 너머 상징의 세계까지
경원 | 400쪽 | 35,000원

현재 금산 극락사 회주, 공주 동학사 주지, BTN 불교티비 자문위원, 한국불복장연구소 소장으로 수행과 전법에 힘쓰고 있다. 수덕사 견성암에서 출가,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였으며, 견성암·대성암·약수암 등 22안거를 성만하였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대 초반부터 청봉당 혜묵 스님 하에서 불복장 전반을 수학하였다.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화두 명상의 길



간화선의 핵심을 질문과 화답으로 풀어낸 실천 지침서
그 깨달음은 문답 속에서 시작된다.

선禪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곧 길입니다.
당신은 문답을 따라가며
어느 순간 '아!' 하는 깨달음과 함께,
본래 자기 안에 있던 ‘길’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길입니다
친절한 화두 명상 지침서
달마 김준영 | 312쪽 | 18,500원

간화선을 기반으로 티벳의 족첸과 포와, 마하시, 술륜, 쉐우민 전통의 위빠사나를 섭렵하였으며 현재, 필요에 따라 간화선, 위빠사나, 티벳명상 등을 융합해서 수행을 안내하고 있다. 2005년부터 화두 외의 방편까지 폭넓게 쓰시는 봉화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 대종사의 가르침을 받고 있으며 축서사 토요정진회 참선 법회 초심자반에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韓미얀마 사원 ‘이주·노동·신행’ 순환 중심 공간”

최정화 서울대 강사, 종문연 심포지엄서 발표

부평 미얀마 거리 3곳 불교사원
8명 스님, 노동자, 난민 인터뷰
버마족, 소수민족마다 사원 창건
다수 버마족 사원 韓불교 교류多
라카인족 사원 등 민족 중심 활동
사원–신도, 공생적 공동체로 운영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인천 부평구 광장로 4번길은 미얀마 이주민의 생활 중심공간으로 ‘미얀마 거리’라고 불린다. 불교국가에서 이주한 만큼 ‘미얀마 거리’에서는 미얀마 불교사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미얀마 불교사원이 이주민들과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조명한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최정화 서울대 종교학과 강사〈사진〉는 5월 17일 열린 ‘한국종교문화연구소 2025 상반기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국경을 넘은 불교: 미얀마 이주민들의 노동과 민주화운동’에서 미얀마 이주 승려, 노동자, 난민들의 삶을 인터뷰를 통해 조명·분석했다. 최 강사의 분석 중 주목할 것은 한국 미얀마 사원의 역할이다.

최 강사에 따르면 부평 ‘미얀마 거리’에는 총 4곳으로 불교사원이 있다. 이들은 민족에 따라 창건됐는데, 가장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을 중심으로 한 ‘미얀마 전법 사원’을 비롯해 카렌족의 ‘싸띳사와디 사원’, 라카인의 ‘담마야나사사나락키따 사원’, 몬족 사원이 활동 중이다. 사원에 주석하며 신도들의 상담과 신행을 책임지는 스님도 해당 민족 출신이다.

민족이 다른 만큼 사원 운영에도 차이가 있다. 미얀마 민족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의 미얀마 전법 사원은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연등회에 참석하는 등 한국불교와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소수민족 사원의 경우에는 해당 민족 중심으로 활동이 이뤄진다. 최 강사가 지난 4월 13일 찾았던 라카인족 사원은 새해 불교행사를 봉행했는데, 모두 라카인족 언어와 의례로 진행됐다. 이들 사원의 운영에서 재가 신도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재가 신도 연합체인 라카인족 협회가 미얀마불교협회에 한국에서 전법할 스님의 파견을 요청하면 불교협회는 이에 맞는 스님을 파견하고, 신도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이주민들의 모은 재화들은 자신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고국의 민주화 운동 지원, 지진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사용된다.

이에 대해 최 강사는 “버마족 사원이 연등회를 통해 한국불교와의 접점을 찾는 데 비중을 둔다면 소수민족에게는 불교를 통해 이주국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재현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미얀마 이주민들의 노동 이주 계기를 분석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글로벌화 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국적 노동을 위한 이주는 일반적으로 역사·구조적인 모순들이 반영돼 과거 피식민지국 국민들이 식민지국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행을 택한 미얀마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고향에서 멀어지고 정체성을 상실하는 ‘탈구(Dislocation)’의 공간이 아닌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동적 움직임’의 산물로 인식된다는 게 최 강사의 설명이다.

이 같은 초국적 노동 이주 과정에서 부평의 미얀마 불교사원들은 이주와 노동, 불교문화·신행을 순환시키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불교사원은 노동과 타향살이에 지친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신·물리적 쉼터가 되며, 주석하는 스님은 이들을 상담하고 고향의 의례를 재현함으로써 일상의 쉼표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 최 강사는 “미얀마 이주민들에게 한국 거주는 ‘실향’이 아닌 주체적 결정이자 가능성의 발현이다. 또한 정치적 혼란기에 빠져 있는 미얀마에서 해외 이주는 독재에 정하는 자유의 공간을 창출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의 강도 높은 노동 현장은 삶을 쉽지 않게 한다. 이 가운데 불교사원은 이주, 노동, 불교문화를 순환시키는 중심적 장소로 기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사원은 미얀마 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공간이며 노동을 위한 재충전을 하거나 밀려난 사람들이 머무는 정주 공간”이라며 “나아가 미얀마 불교사원들은 일자리를 상실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보시를 받지 않고도 거둔다. 노동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노동 이탈자들을 수용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상 치유 여정 그려낸 스님과 작가 3人 콜라보

5월 29일까지 아트센터 자인서 ‘기도, 명상, 부처’ 주제로 전시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아트센터 자인에서 5월 29일까지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과 서칠교 불상 조각가, 박청용 작가의 ‘명상 치유의 여정’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는 1년 전 우연히 만난 세 사람이 1년 후 함께 명상과 예술을 세상에 알리는 의미 있는 전시를 펼치자고 약속한 데서 시작됐다. ‘기도’, ‘명상’, ‘부처’라는 주제 아래, 작가가 각자의 시선과 재료로 해석한 내면의 평화와 구원의 이미지들이 소개됐다.

서칠교 작가는 지난 2월 작업실 화재로 대부분의 작업물을 잃었다. 그러나 타버린 작업실 속 살아남은 청동 작품들을 발견하고 오히려 깊이를 발견했고, 전시까지 이어졌다. 이번 전시의 모든 작품을 누구나 만져볼 수 있게 전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불길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그으름에서 발견한 청동의 질감을 관람객들도 직접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

박청용 작가는 8만4000번의 기도하는 사람을 완성한 후 최근 100만 번의 기도하는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1장에 1250번씩, 총 800장을 완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9장이 완성됐다. 이번 전시에도 프로젝트의 일부가 ‘8만 4천 작품시리즈-일심·여백·단비·행·위로’와 함께 장엄하게 전시됐다.

이번 전시의 매개체가 된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네팔 안나푸르나에 위치한 저스트비 베이스캠프에서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까지 이어지는 163km의 수행 순례길을 개척하는 여정을 소개했다. 전 세계 수행자들이 함께 걷는 뜻깊은 순례길 프로젝트를 통해 참 나를 찾아 걷는 길을 많은 이들이 경험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았다.

준한 스님은 “우연이 겹친 만남은 부처님께서 셋이 힘을 합쳐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해보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다”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큰 힘으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사진 왼쪽부터 서칠교 조각가, 준한 스님, 박청용 작가.

천년고을 진주가 품은 신앙·사상들

진주博 특별전…옥천사 시왕도 등 전시

경상도 서부 지역의 중심지였던 진주가 품어낸 역사, 신앙 등의 면면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전 ‘천년 진주, 진주목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이라는 고을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역사와 신앙, 사상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한다. 특히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앙들을 살펴볼 수 있어 눈길을 끈다.

4부로 진행되는 전시 중 ‘도타운 믿음이 깃든 곳, 진주’ 섹션에서는 진주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그들의 품었던 희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전통의 지리산 성모신앙, 불교신앙뿐만 아니라, 근·현대 진주지역에 새롭게 들어온 종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유산으로는 고성 옥천사 시왕도(보물), 월아산 청곡사 청동북 금고 등이 소개된다.



보물 고성 옥천사 시왕도. 국립진주박물관 특별전에 전시된다.

이밖에도 제1부 ‘지리산과 남해의 큰 고을, 진주’에서는 지난 1000년 동안 진주목의 역사가 전개됐는지를 다루며, 제2부 ‘물산이 넉넉한 땅, 진주’에서는 진주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부 ‘올바른 뜻을 품은 고장, 진주’에서는 진주 사람이 역사의 전환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하였는지를 추적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석전·만해부터 AI까지…‘동국 불교’ 살피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스님)는 5월 16일 교내 혜화관 고순청세미나실에서 ‘동국의 불교 전통에서 배우다’를 주제로 제19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사진〉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동국대 출신 불교 선지식들의 사상과 실천이 조명돼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은 ‘석전 박한영의 교육 철학과 불교 인재 양성 연구’를 통해 석전 박한영(1870~1948) 스님의 불교 인재 양성 전략과 성과를 분석했다.

정완 스님은 “석전 스님은 불교 본래 정신의 회복을 통한 근본적 쇄신과 사회적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참여적 불교 교육을 지향했다”면서 “스님의 교육 방법은 전통 교학의 내실화, 계율 중심의 교육 실천, 근대적 교수법 및 학문의 적극적 수용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출가자와 재가자 모두를 포괄하는 포용적 교육으로 발전했다”고 분석했다.

오용석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만해 한용운의 간화선과 구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만해 스님의 오도송과 〈십현담주해〉 등에 나타난 스님의 간화선관과 구세관을 조명했다.

오 교수는 “만해 스님은 간화선과 관련된 여러 선적(禪籍)을 열람했고, 간화선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는 ‘무호 백성욱의 불교사상과 수행법 고찰’을 통해 백성욱이 동국대 2대 총장을 역임하며 학교의 기틀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의 수행관에 대해서는 “백성욱의 〈금강경〉에 대한 해석과 접근 방식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그가 체험한 숙명통에 대해서도 숙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신중일 기자

“산양 가죽신발로 봄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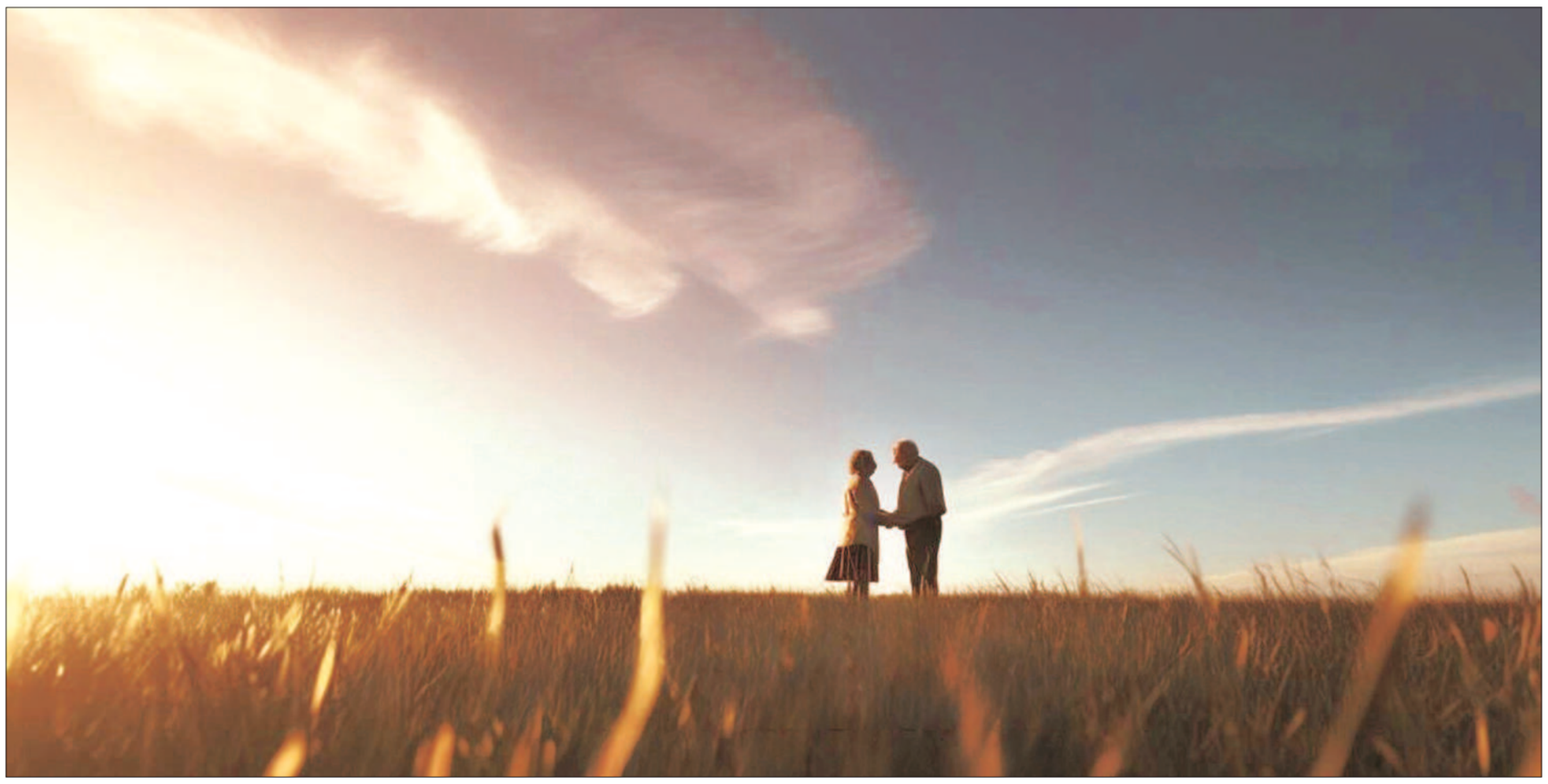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20 완전한 행복이란



▶한줄 요약
완전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과 불행의 두 마음을 모두 여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두 마음 모두 여의어라

[오늘의 명상]
행복은
과거에 내가 곱게 보낸 시간의 선물이다.
완전한 행복은
불행이라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는 것이다.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요? 삶은 과거의 습관들이 쌓여 업장이 되고, 그 버릇들이 다시 반복되며 이어지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기쁨도 슬픔도 모두 과거에 행했던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행을 전생이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습들은 다시 쌓여 내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몸은 과거의 버릇들이 쌓여 만들어진 물질이고, 마음은 그 육신을 통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과거의 습관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생겨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모두 과거의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행복 또한 과거에 경험했던 기쁨과 즐거움, 편안함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불행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불행 역시 행복 없이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행복 없는 불행, 불행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즐거움과 괴로움, 이 모든 것은 서로를 의지하며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만을 선택하려 한다면, 이는 매우 어리석은 고집이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 중 하나만을 선택하려 하거나,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 중 하나만을 잡으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현상은 순환하며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과거의 버릇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금강석처럼 굳어진 버릇(습)을 고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분별심(分別心)으로 인해 쌓인 업장을 없애지 않으면 고해(苦海)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과 불행의 두 마음을 모두 여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비로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깨어 있는 마음으로 나의 분별심을 살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의 버릇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이 있습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를 꾸준히 실천하며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보시(布施)는 분별을 멈추고 조건 없이 베푸는 연습을 통해 마음을 밝히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보시의 실천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나와 세상 모두에게 선업이 되고, 불필요한 분별을 줄여내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작은 보시의 실천을 통해 업장을 녹이고, 행복과 불행을 넘어서 온전한 평화를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스스로 모든 움직임에 그저 초연하다면
그 어떤 장애물인들 무에 방해가 되겠는가?
쇠로 만든 소는 사자의 포효에도 끄떡 않고
나무로 만든 사람이 꽃과 새를 보듯 한다면….

但自無心於萬物 何妨萬物常圍繞(단자무심어만물 하방만물상위요)

다만 온갖 만물에 무심하다면, 만물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 방해가 되겠습니까.

鐵牛不怕獅子吼 恰似木人見花鳥(철우불파사자후 흡사목인견화조)

쇠로 만든 소는 사자의 포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무로 만든 사람은 꽃과 새를 보아도 동요하지 않으니, 이는 여여한 마음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했습니다. 희로애락(喜怒哀樂)은 모두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감정은 곧 업(業)의 본질이기에, 사람은 기분에 따라 살고 기분에 따라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행복, 경험했던 기쁨 · 즐거움 결과**
> **불행 없이는 행복도 존재할 수 없어**
> **진정한 행복, 분별심 없어야 가능해**
> **육바라밀 중 '보시바라밀' 실천하길**
> **불필요한 분별 줄여내는 힘이 될 것**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오욕(五慾)의 본능적인 욕심을 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욕심은 상대적인 감정이기에 반드시 그 반대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기분이 나쁜 것에 의지하여 생기고, 나쁜 기분은 좋은 기분에 의존하여 나타납니다. 결국 이는 떼어낼 수 없는 불가분(不可分)의 관계입니다.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것들은 모두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중생의 삶은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이 반복되는 윤회(輪廻)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감정의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일을 빌미로 기분이 들고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기분에 따라 일이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분이 생기면 좋은 일이 나타나고, 나쁜 기분이 생기면 나쁜 일이 뒤따릅니다. 현상이 먼저인지 기분이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쇠로 만든 소처럼, 나무로 만든 목인(木人)처럼 감정이 사라진 여여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일도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는 곧 부처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여한 마음을 위해서는 모든 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감정의 흐름을 잘 살피며 스스로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크다면 업장(業障)이 쌓여 삶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꾸준히 마음을 살피고 정리하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기분의 들쑥날쑥함을 고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감정을 정돈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살피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로써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세상의 모든 일이 스쳐 지나가는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최선일의 佛母列傳 시즌2 ❻ 인균(印均 · 仁均 · 印筠) 스님



▶한줄 요약
인균 스님은 1640년대에 수화승으로서 명산대찰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이다.

조선 대표 조각승 집단 이끈 최고 僧匠 〈승장〉

인균 스님은 17세기 전반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응원 스님과 함께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응원 스님과 인균 스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스님이 제작에 참여한 15건의 불상 중 7건을 응원 스님과 함께 작업했다. 특히 1610년부터 1630년대 중반까지 응원 스님을 따라 대부분 작업을 한 것으로 보아, 선후배 사이라기보다는 사제지간일 가능성이 높다. 응원 스님이 1635년에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제작한 후 활동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지만, 인균 스님은 1640년대부터 1660년대 전반까지 수화승으로 불상 제작을 주도하여 응원 스님보다 한 세대 더 활동했다.

조각승 인균 스님은 1614년 2월, 각심(覺心)·응원 스님과 함께 무안 목우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아미타여래,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제작할 때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1615년에 태전(太顚)·응원 스님과 함께 김제 금산사 독성상(獨聖像)을 만들었다. 또한 1622년 5월 서울 자수사(慈壽寺)와 인수사(仁壽寺)에서 현진·응원·수연·법령(法玲)·청허(淸虛) 스님 등이 비로자나불(2존), 석가여래(3존), 노사나여래(2존), 미타여래(2존), 관음보살(1존), 대세지보살(1존) 등 11존의 불상 등을 조성할 때,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당시 제작된 비로자나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석가여래좌상은 서울 칠보사와 안동 선찰사에 봉안되어 있다. 인균 스님은 16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수화승으로 활동하며, 석삼(釋森) 스님과 함께 하동 쌍계사 목패(김제 금산사 조성)를 제작했다.

인균 스님은 1624년 수화승 응원 스님과 함께 순천 송광사 광원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송광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과 소조나한상 등을 조성했다. 이어 1628년에는 순천 송광사 소조사천왕상을 조성할 때, 오위(五衛)의 정6품의 군직에 해당하는 사과(司果)로 참여했다. 이후 인균 스님이 1633년 10월에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삼존상과 나한상 등 25구를 수화승으로 조성한 것을 볼 때, 당시 조각승으로서 위상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균 스님은 1634년 3월부터 1635년 8월까지 청헌(淸憲)·응원 스님을 도와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국보)을 만들었다. 이후에는 수화승으로서 1643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아미타여래는 광양 백운사, 보살좌상은 청도 장연사)과 1648년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 일괄(보물)을 조성했다.

> 응원 스님과 호남 중심으로 활동
> 1640년대 수화승 맡아 작품 절정
> 김제 귀신사 등 불상 조성 이끌어
> 천신–색난으로 불모 계보 이어져

1654년에는 해익(海益)·천신(天信)·하륵(河勒) 스님과 함께 화순 사자암에 목조보살좌상(순천 송광사 부도암 봉안)을 제작했다. 1655년에는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과 나한상을, 1662년에는 전주 학소암 목조여래좌상을 만들었다.

1663년에 건립된 구례 화엄사 벽암국일도대선사비(碧巖國一都大禪師碑)를 통해서는 인균 스님이 승병장이자, 당대의 최고의 고승 벽암 각성(碧巖覺性, 1575~1660)의 문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헌을 바탕으로 인균 스님은 1580년 전후에 태어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 1610년대 각심 스님이나 현진 스님 등이 제작한 불상의 보조 화승으로 참여하다가 1630년대 청헌 스님이나 응원 스님 등이 주도한 불상 제작에 부화승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640년대에 수화승으로서 명산대찰 전각에 불상을 제작한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갖춘 조각승으로 보인다. 특히 1630년대 중반 왕실의 발원으로 조성된 구례 화엄사 대웅전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 제작에 참여한 수십 명의 조각승 중 세 번째로 언급된 점을 통해, 그가 이 시기 완숙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선 후기 조각승 인균 스님이 수화승으로서 가장 빠른 시기인 1633년 조성한 김제 귀신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인균 스님의 계보는 응원(1613~1635, 이하 활동 연대)→인균(印均·仁均, 1614~1662)·석삼(釋森·釋參, 1623~1640)·회감(懷鑑·懷鑒, 1633~1666)·삼인(1628~1659)→천신(天信, 1654~1670)→색난(色難·色蘭, 1662~1730)·충옥(忠玉, 1668~1705) 등으로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대표하는 조각승 집단이다. 특히 1662년 전주 학소암 목조여래좌상 조성 시, 조선 후기 불교 조각계의 전성기를 이끈 색난 스님이 보조 화승으로 제작에 참여한 점은 17세기 전·중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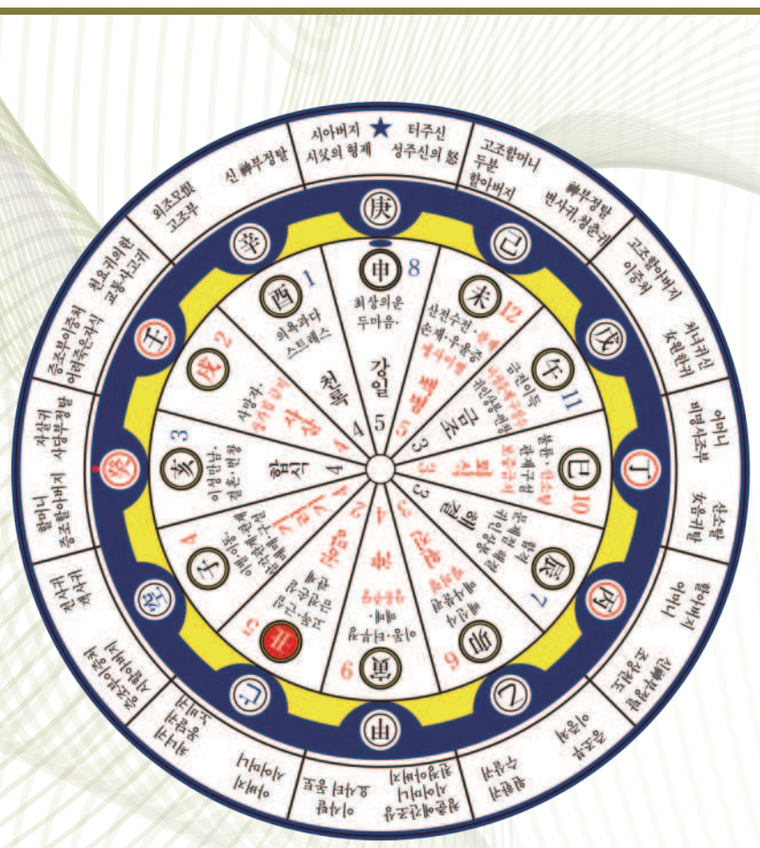
인균 스님이 수화승으로 만든 가장 빠른 불상은 1633년 10월에 조성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삼존상과 나한상 일괄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의하면 "난이 일어났을 때 모두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중략) 나한전이 없었는데, 도헌 비구가 탄식하며 스스로 발심하여 나한전을 짓고, 곳간을 고친 후 영산전에 교주 석가모니불, 아난과 가섭, 16나한상, 좌우 제석, 감제·직부사자, 건령신 등 25위를 한 곳으로 봉안하였습니다. (중략) 숭정 6년 계유 10월 7일에 낙성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당시 석가, 가섭·아난, 16나한, 제석(2구), 사자(2구), 장군(건령신, 2구)를 합하여 총 25구의 불상을 인균·대오(大悟)·신계(信戒)·관해(寬海)·회감(懷鑑)·천고(天沽)·처심(處心)·영관(靈寬)·영인(靈印)·고경(沽敬)·상의(尙儀)·학고(學沽) 스님이 제작했다.

귀신사 불상은 총 12명의 조각승이 1633년 10월에 완성한 것을 보면 우기(雨期)가 끝난 직후 조성이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화주는 도헌(道軒) 스님, 증명은 처명(處明) 스님, 지전은 성열(性悅) 스님이 맡았다. 증명을 맡은 처명 스님이 1633년에 조성된 고창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만들 때도 증명으로 참여한 것을 보면, 당시 전북 지역에서 활동한 고승(高僧)임을 알 수 있다.

소조석가여래좌상은 135.5㎝의 중대형 불상으로, 얼굴에 비하여 어깨가 약간 좁지만 체구가 건장한 편이다. 무릎의 너비나 높이가 적당한 비례를 갖추고, 양쪽 무릎 끝에서 머리끝으로 이등변 삼각형을 이루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정수리에 정상계주를 갖추고, 나발은 촘촘하게 장식되어 있으며, 이마 중앙 윗부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다. 앙련(仰蓮)과 복련(伏蓮)으로 이루어진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자세로,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 촉지인(觸地印)을 취하고, 왼손은 다리에 얹은 채 손바닥을 위로하고 엄지와 중지를 결하고 있다. 상호는 긴 네모꼴로 눈두덩이가 두툼하고, 가늘게 뜬 눈은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갔으며, 코는 이등변 삼각형이다. 착의법은 두꺼운 대의 안쪽에 부견의를 입지 않은 채,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이 완만하게 팔꿈치로 늘어져 있다. 또한 대의는 복부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하반신을 덮은 옷자락은 끝단이 앞으로 늘어지고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다. 가슴을 덮은 승각기의 윗단은 사선으로 접혀 있고, 그 밑에 불룩한 배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목구비(耳目口鼻)에서 풍기는 인상이나 착의법은 인균 스님이 수화승으로 제작한 광양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1643년),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1648년), 화순 사자암 목조보살좌상(1654년), 여수 흥국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1655년), 전주 학소암 목조약사여래좌상(화순 유마사 조성, 1662년)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사〉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 csi34@hanmail.net



내손안의 귀장술

귀장술 쉽게보는 원판
내손안의 귀장술 입니다.
금일 일진만 맞추면 한눈에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庚申日 기준)
굳이 손으로 짚을 필요가 없이
공망도 표시가 되므로 육십갑자를
외우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귀장술 원판은 오랜 기간의 연구 끝에
제작 되었습니다.
문점자의 사주(연,월,일,시)를
알 수 없을 때는, 귀장술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NAVER 귀장술원판 영재철학관 검색
Daum 귀장술원판 영재철학관 검색

귀장술 원판 〈크기 : 지름 大 16cm, 小 13cm〉
※본 사진의 원판 크기는 13cm(휴대용) 입니다.
특허등록 30-0721929
무단복제 및 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귀장술 카드 〈크기 : 가로 9cm×세로 15cm〉
※카드 전체 수량은 14장입니다. ※카드 특허 출원중
※카드에는 원판에 모두 넣치 못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0여년전부터 카드를 만들어 충분한 임상을 거쳐 제작하였습니다.
문점자의 사주가 불확실시 카드를 뽑으세요. 정확합니다.
양면 코팅으로 보존성이 뛰어납니다.

카드사용법
본인 또는 타인이 상담할시 본인에게 카드를 뽑으라고 하세요.
첫번째 카드를 뽑아 기록후 다시 집어 넣어 섞으세요.
처음은 년(年), 두 번째는 월(月), 세 번째는 일(日), 마지막은 시(時) 입니다.
섞는 이유는 사주 지지가 겹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하게 상가집 방문시 동도지를 소지 합니다.
광명진언의 강력한 힘을 믿으세요.

21세기 영재철학관 010-8558-2345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32호 | 15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경기도 • 부지 : 700평 • 건평 : 150평 외 • 산 밑 차량진입, 주차가능 • 매가 : 25억
- 위치 : 부산시 • 면적 : 700평, 전통사찰 • 법당 : 30평, 요사60평 • 매가 : 35억 • 산 밑, 주차가능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매도, 매수,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앞 저수지 뒤 황학산 배산임수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 1동 / 종무소 · 객방 13평 - 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사찰
- 총 평수 45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7천만원

010-5804-510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 67평 동불 삼존불
  시설물 : 2500만원 상당
-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1번 출구 300m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남녀화장실
- 문의, 가격 절충

010-3102-510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리
  *서울에서 약106㎞ 1시간 30분, 동홍천 IC에서 17㎞ 25분거리
- 총토지면적 : 546평
  *대지 199평, 건평 25평 1동, 임야 247평 (산지전용 토목공사 완료), 도로 약 100평
- 가액 : 1억 8천만원
- 사방이 국유지에 쌓인 천연 휴양지로 개인 토굴, 전원주택, 선방용으로 추천

010-8833-69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230평
- 가액 : 2억3000만원(가격절충)
- 종교부지 / 주차 5대
- 법당 20평 산신각 요사채 등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 / 법당 20평 산신각 / 요사, 별채 50평
- 가액 : 2억2천
- 수도 가스난방

010-2369-3382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사천시 새고개2길 47 (삼천포)
- 대지 : 265평 (법당20평 정동향)
- 요사 : 30평 (방3, 화장실2, 정남향) 3평(황토 찜질방 1동)
- 특징 : 대형e마트 도보3분 위치 30대주차, 마당까지 진입
- 가액 : 2억3천(地價만 계산했음)

010-8868-7017

암자터 안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정안IC 10분
- 유명한 산 칠부능선, 암반에서 1급수 약수가 365일 사시사철 흐르고, 앞에 큰 계곡물이 흐름
- 가옥 : 25평, 40평(2채)
- 평수 : 8000평에 밤나무와 과실수 현재 수확 중
- 가액 : 12억원
- 물물교환 가능

010-5343-671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사 찰 안 내

- 대구시 동구 최고 중심 11억 대웅전, 종무원, 요사채, 산신각 지하철역, 대웅전 뒤에는 좋은 산
- 경북 청도 이서 아름다운 사찰 전통양식 대웅전 등 5채 6억5천
- 봉화토굴 : 건평 38평 4천5백만원
- 영천토굴 : 건평 40평 4천3백만원
- 대구 동구 000종단본부 뒷산 팔공산, 앞산전망 최고 대웅전, 종무원, 산신각 등
- 대구사찰 : 12억 땅 7백평 신도 일천명, 대웅전 등등
- 팔공산암자: 2억원 호조건
- 고령사찰: 2억원 건평 170평

053-745-9999, 010-2512-7777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 600평 / 임야 : 3600평
- 건물 : 대웅전55평 공양실35평 종무소10평 요사30평
- 천연 지하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7억원

010-6764-003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 땅 대지 86평 대웅전 목재 20평 삼존불
  산신각 2평 요사채 20평 마당
  약사여래불 방3 화장실 3
- 가액 : 1억 6천만원

010-9137-3838

사 찰 안 내

- 약사암
- 위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독채 35평
- 보증금 300만원 월세30만원
- 평생 거주 가능

010-6224-2199

사 찰 안 내

- 위 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 지 : 700평 (실사용 천평)
- 건 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황토방 2동
- 해우소 : 1동. 차량진입, 주차장
- 금 액 : 4억

산이 병풍처럼 쌓인 도량, 남향이라 따뜻하고 앞이 탁트이고 살기좋은 도량, 큰비가 와도 물 배수잘됨. 도량에 과일나무 자두, 호두, 은행, 오디, 감나무, 매실, 두릅, 머위, 고사리 등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13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제주 (토지) 안내

- 전답 : 약 3천평 평당 50만원
- 팬션, 주택, 농장, 노후투자 확실 (도로접근최고) 일주도로 70m거리
- 현재 : 밀감 및 조경수 식재 300m 안에 (바닷가, 목욕탕, 마트, 면사무소, 우체국, 병원, 한의원, 소방서, 초 · 중학교)
- 주인직접전화

010-2104-2040

건 물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포동 7길6 무비모텔
- 대지 : 100평 / 건평50평 / 방32개 / 6층주택(포교원 가능 바닷가 보임) 방향:동향
  어시장, 부림시장, 운동장, 학교 인접
- 가액 : 25억(절충가능)

010-3840-9986 (저녁7시 이후)
010-7772-7886 (오전오후)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 총평수 : 690평(대지330평, 밭360평)
- 대웅전 36평, 요사채, 공양간 30평, 산신각8평
- 김천아포스마트시티아파트에서 3분
- 김천아포덕일아파트에서 5분
- 매가 : 2억8천

010-9048-66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청도면 요고리 산334
- 종교부지(대지) : 약 462평(대웅전, 산신각 등 다수)
  법당평수 : 약 133평(1층, 2층, 3층) / 불상 다수 외
  요사채 : 약 82평(1층, 2층)
- 기타대지 : 3,238평(도로, 답, 전, 임야, 주차장 등)



- 장점 : 1. 도로는 대형버스 이용 가능하며, 사찰까지 포장됨(주차장 넓음)
  2. 주변 경치가 좋고, 하천(계곡)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음(사진 참조)
- 가격 : 협상(2025.2 종교시설 제외 감정평가액 12억원)

010-3862-0398(스님) / 010-4196-6070(관리자)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황정리
- 대지 : 210평
- 건물 : 법당, 삼성각, 요사채(방 4개), 주차장
- 가액 : 보증금 300만원/년 500만원

※집기류, 가전제품, 모든 기물 양도
경내 영험있는 서낭나무 있음
무속인, 철학인, 기도승 대환영

010-5333-8905
010-5022-2187

사 찰 안 내

사찰(기부)회향매매하려합니다.

- 위치 : 경남사천
- 3.500평이상 / 극락전30평
- 산신각/용왕당/미륵불
- 약사전/종각/ 부도탑20기
- 요사채(방7개)

(부재시문자주세요!)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대지 임야 등 약 1200평
- 대웅전 요사채 2동 약 86평
- 가액 : 13억 5000만원(절충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5033-14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쌍계동 321번지
- 대지 : 230평
- 건물 : 법당18평, 뒷편 방1, 창고 요사채20평(방2,거실,부엌,창고) 용왕당, 산신각, 법종, 탑 등
- 이마트 영천점 4분거리
- 가격 : 3억6천만원

010-5204-8176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

생활안내

1532호 | 16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 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일반주택, 빌라, 상가 (기와/슬레트, 슬라브) 지붕공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및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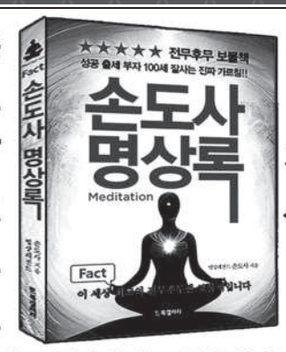
010-2168-2800

사찰행사(불교의식)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 나비무, 전통살풀이
정성껏 해드립니다

연암당 스님
010-6219-4757

손도사 유튜브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요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범음 · 범패 학인 모집

- 각단의식 및 예불, 천수바라, 작법
- 사물 법고, 정근북, 송주북
- 각 사찰 행사 합니다
- 진주 금륜사 법현 . 대진합장
- 주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륜사

010-7579-82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포교원 할 스님 찾음

- 서울 목동 사거리 시장 옆 2층
- 공양주 부전 스님 일할 분 쓸 분
- 결혼할 분 정보 있음-명동 결혼
- 주야 환영

010-5381-1419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드야나젠(의념선)힐링 수강생(전수자) 모집

1. 세상에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은 수없이 많다.
2. 그러나 올바른 길, 지름 길을 찾기는 어렵다.
3. 쉽지만 매우 어렵고 어렵지만 매우 쉽다.
4. 세상은 갈수록 혼탁하고 혼란하여 규범과 예와 절이 무너졌다.
5. 가치관과 신념은 본래 무상하나 위험하고 다루기 어렵다
6. 무아의 진실, 보이지 않으나 볼 수 있다.
7. 반야의 세계, 관음의 세계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아 가네.
가까이 있는 보물은 못보고서 먼 무지개와 신기루만 바라보네.
인연이 박절하여 큰 스승도 지나치니 평생을 곤곤하게 헤메이네.

심신이 지치고 힘든 분, 영적 혼란과 병고로 힘든 분,
영적성장과 청정한 영혼을 원하는 분, 완전한 신성을 보실 분
이제 부처님법에 따라 스스로 자신을 구제할 수행제자를 찾는 바
인연 있는 수행제자의 많은 동참신청을 바라나이다.

의념선 수행처, 스타타운 젠아쉬람
제123조 그루사문 St,Moon 월명 성월
연락처 : 010-3394,0108

사찰 및 재단법인 추모공원 대표 및 주지 하실분 찾습니다

땅 만평 정도, 관광사찰 납골 현 600기정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 태고종 스님 우대
- 법력 무관

010-2650-5852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검증 30년의 신뢰! 분실 파손 재실행 영구사용!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위 육임 프로그램과 육임Ai와 육임 각 활용서 극대 효능을 위한 저, 효사 개별 직접 방문 전국 순회 일정입니다.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원의
불교미학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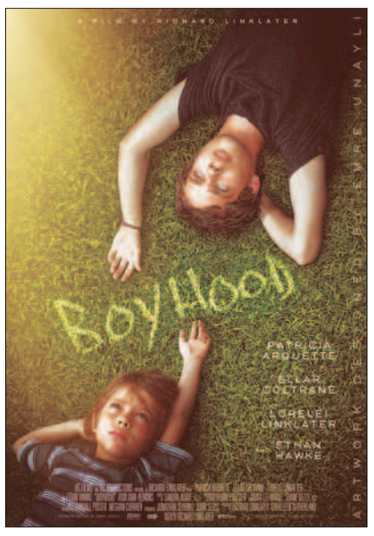
⑩ 정각원 돌계단–상대적 시간, 점과 돈

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

산책의 여정 속에 영상대학원을 지나면 우뚝 솟아 있는 동국대학교 백주년기념비를 만나게 된다. 백주년기념비는 백년이라는 영욕의 세월을 견뎌 온 동국대학교의 흔적이자, 차를 타고 대학에 들어오면 꼭 보게 되는 학교 상징물이다. 한마디로 학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백년비 옆으로는 동국대의 또 다른 상징물인 정각원이 있다. 그런데 정각원에 이르는 길이 심상치가 않다. 그렇다. 우리를 계속 괴롭혀 온 계단의 마지막 관문이 정각원 계단이다. 가파른 돌계단은 정각원을 우러러보게 하는 길고 높은 계단이다. 앞서 우리는 동대입구역 6번 출구에서부터 언덕을 올라 혜화문에 이르렀고, 또 박물관까지 계단을 밟아 도착했다. 그 옆으로 난 언덕배기 길을 피해 혜화관, 혜화별관을 끼고 돌았지만 결국 동국대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계단을 또 만나게 된 것이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동국대 학생은 책과 노트북이라는 짐을 짊어지고서 매일 10층 높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시시포스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중의 반이 바로 이 정각원 돌계단이다. 그런데 형벌을 받을 때 가장 괴로운 점은 시간이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들 겪어봤겠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시간이 갑자기 거북이가 되어버린다. 반대로 즐거운 일은 찰나 만에 끝나게 된다. 분명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돌고 있는 데도 말이다.

영화 '보이후드'는 6살짜리 꼬마가 대학에 들어가기까지의 내용을 담은 3시간 분량의 영화다. 3시간짜리 영화라고 하면 보통 '반지의 제왕 1'이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과 같은 영화, 혹은 근래 개봉한 '듄 파트1'과 같이 시리즈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아예 다른 세계를 설명하거나, 앞으로 몇 편이 더 나올지 모르는 후속작을 위해 여러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이 생각날 수 있다. 이런 영화들은 그 세계관 설명이 장황하다 보니, 다소 지루하다는 평이 꼭 붙는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3시간짜리 영화인 '보이후드'는 그저 6살 꼬마가 18살 대학생이 되는 평범한 삶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세계관도 아니고, 꼬마가 자라는 내용을 3시간씩이나 들여 찍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보이후드'는 6살 아역배우가 18살 대학생이 될 때까지, 즉 12년에 걸쳐 촬영된 영화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반응이 달라진다. 어떻게 사람의 12년 삶을 3시간으로 줄일 수 있냐고. 세계를 설명하는 데 3시간은 길고 지루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데 3시간은 짧은 것이다.



영화 '보이후드' 포스터.

돈(頓)을 좋아하는 것은 선(禪)의 사고
설일체유부는 단호히 점(漸)을 말해
보살도 한순간 깨닫는 것 아니야

말이 길었지만, 시간은 상대적임을 말하고 싶었다. 불교에서는 이를 돈(頓)과 점(漸)이라 한다. 이 돈점 문제를 근대 성철 스님의 돈오돈수 주창으로 알고계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된다. 돈오점수냐, 돈오돈수냐. 그런데 점오점수를 말하지 않는 것을 보니 모두 돈오를 좋아하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선(禪)의 사고이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종합하고 정리하여 체계를 세운 아비달마 불교, 그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이었던 설일체유부는 단호하게 점을 말했다. 그들에게 깨달음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을 지루하게 올라 얻는 힘든 일이다.

나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점의 일을 생각한다. 숨에 수를 세고(수·數), 따르고(수·隨), 멈추고(지·止), 관찰(관·觀)하여 돌이켜보고(환·還) 깨끗해지는(정·淨) 아나파나, 육묘문의 여섯 계단을 지나 몸이 고통이고 덧없으며 영원하지 않고 나라 할 수 없음을 고민하여 느낌도 마음도 일체 세상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관찰하는 사념처의 네 계단. 일체가 고통이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사성제를 반복적으로 성찰하는 사선근의 네 계단. 이 사선근의 마지막 계단인 세제일법을 딛고 오르면, 중생은 바로 불교의 성자가 된다. 그런데 성자라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니다. 계단이 끝나려면 견도 16찰나의 열여섯 계단, 수도 162찰나의 백예순둘의 계단이 남아 있다. 설일체유부에서는 이토록 깨달음은 길고 힘들며 지난한 길이다.

그런데 앞서 시간이 상대적임을 우리는 산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수백 개의 계단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오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찰나처럼 느껴지겠지만, 괴롭게만 느껴진다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없는 등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온 생명의 행복을 위해 부처님은 가르침을 전하셨고, 우리는 백천만겁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행복한 중생들인데 왜 이 행복한 사람이 행복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고 괴롭게 여길까? 설일체유부가 점이라 단언한 것은 이 불교의 실천이 지난하고 괴롭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 분의 가르침은 반드시 행복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런데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왜일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지 못한 백천만겁의 삶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고, 그 안에서 즐겁다고 착각하며 살아온 억겁의 습(習)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습관을 고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담배를 태워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담배를 끊기 위해 고생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다. 담배라는 습관을 끊어야 자신도 가족도 행복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이어서 시간이 좀처럼 흐르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지난하고 괴로운 길을 행복하게 오르는 등반가가 있으니 바로 보살(菩薩)이다. 보살이라고 똑똑해서 한순간에 툭 깨닫는 것이 아니다. 〈반야경〉에서는 반야십지(般若十地)라 하여 보살도 아비달마의 수행자와 똑같은 수행을 일곱 계단 밟아야 한다고 한다. 오로지 보살만의 십지라 하는 〈화엄경〉의 화엄십지도 열 가지 계단이며, '입법계품'의 마지막 보현행원은 이 우주가 먼지가 되더라도 보살의 서원은 끝이 없는 여정임을 설한다. 그런데 화엄은 완전한 돈교의 가르침이 아닌가? 끝이 없는데 왜 돈이라 하는가? 영원한 점일 뿐 아닌가? 나는 보살이 우주가 끝나도 끝나지 않을 보살행을 즐겁게 실천하는 자이기에 이것이 돈이라 말한다고 생각한다. 아비달마의 괴로운 발걸음과 대승의 홀가분한 발걸음은 연인을 버리고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나는 마음과 연인을 만나러 한 달음에 달려가는 마음에 다름 아니다. 돈과 점이란 물리적인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인 것이다.

〈동국대 박사〉

신방 법사가 쓴 〈지장십륜경〉 서문
말법 제도에 지장보살 필요성 강조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⑳ 지장십륜경 서문

〈지장십륜경〉의 원래 명칭은 〈대승대집지장십륜경〉으로 구역(舊譯)은 〈대방광십륜경〉의 새로운 번역물입니다. 신방(神昉) 법사가 현장 삼장과 함께 번경(飜經,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 일) 끝에 영미(永微) 2년(651)에 완성한 것이 바로 〈지장십륜경〉입니다. 신방은 이 경의 시작 전에 서문(序文)을 지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신라 승려인 신방은 삼계교의 중심적 인물이지만 한국불교학계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진해 〈지장십륜경〉의 한글 번역에 있어서도 신방의 서(序)는 소개가 누락된 실정입니다.

삼계교는 '지장교'라고도 부를 정도로 '지장사상'을 유포·발전시켰고 신방 법사가 그 핵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장보살을 주인공으로 하는 〈지장십륜경〉의 제작 스토리를, 경 서문(經 序文)의 제작자인 신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은 서문의 전문을 725자로 요약하면서 불법이 정법(正法)을 지나 상말법(像末法)에 해당된 긴박함을 첫 대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중생들이 〈화엄경〉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사제(四諦, 고·집·멸·도)의 법을 전하지만 이때는 상법과 말법 시기에 해당돼 지혜와 복덕의 시기를 달리하기에 상근기와 하근기의 분별을 고려해 그 질환을 치료하며 삼승(三乘, 성문·연각·보살)의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승과 삼승의 근기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일승삼승의 가마(駕, 마차) 어찌 그 바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며 같이 할 수가 없음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중생의 근기가 다르므로 그 근기에 맞게 처방 또한 달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장십륜경〉에서의 바로 이 주장은 삼계교의 '삼계불법'의 종지가 되고 있으며 〈지장십륜경〉이 말법 중생들의 근기를 치료하는 데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삼계교에서도 중생의 근기에 맞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대근기행법'이라고 별도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서문에서 "보살은 성문의 형상을 하고 상왕(象王, 석가)은 출가의 복을 존경하며…(중략)…차토(此土, 중국), 삼보의 종성(種姓)으로 하여금 위덕치성(威德熾盛)하여…(중략)…금강과 같이 견고한 번뇌를 섬멸하므로 금강번뇌의 험장(驗障)이 어찌 일승과 다를 것인가"라는 것은 말법 중생의 제도에는 부처의 형상을 한 거룩한 모습보다는, 승려의 모습을 한 지장보살이 더욱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금강처럼 견고한 번뇌도 능히 제멸할 수 있어서, 중생들의 이익에 더욱 합당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장십륜경〉의 계보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경(舊經, 예전의 〈대방광십륜경8권〉)은 연대가 오래됐다.…(중략)…나와 같은 자는 넋을 진채(眞彩)에 잃고, 나와 다른 자는 미소를 담미(淡味)로 한다.…(중략)…털끝이라도 잘못됨을 배운다면, 오르내림의 다른 길 있네. 그것이 어찌 쉬운 길이겠는가?"

이 말은 번역에 있어서 예전과 지금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며 나와 같은 자 운운함은 〈지장십륜경〉을 가볍게 봐 '담담한 맛'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함을 경고하고 신사상(新思想) 전법의 위험함을 생사왕래에 비유합니다.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문자의 선별과 뜻에 있어서 고심하는 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번역의 시한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방은 얇은 업으로 진응(眞應, 부처님)을 만나지 못하고…(중략)…종이를 다루어 외려(外慮)를 두절(杜絶)하고 교(敎)를 지극히 힘써, 분집의 주(疇)를 물어(諮) 번역한다. 법주(法主) 중복하여 범문(梵文)을 사룀. 고종(高宗) 영미(永微) 2년 651 신해에 돌아오는 정월 을미년 12월 갑인 일을 끝으로 번역이 끝났다. 시필(始畢) 대개 8품 10권이 된다. 지금 것을 구본(舊本)과 비교해, 다시 밝혀 구본에 없는 문(文)을 모두 여기에 실었다."

이를 살펴보면 구체적이면서도 경의 번역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 법사와 범문을 교환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까지 소상히 밝혀, 전체가 중국에서 지어낸 경전이라는 것을 일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은 후학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불 가고 후불 아직 일어나지 않았네. 원컨대 이 가르침 오래 멀고 길게 오는 이에게 건네줄 것을. 세상에 도를 펴는 이여, 어쩔까 생각말기를!"

〈송림사 주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보배의 24번의 계절 ⑩ 소만 _ 화성 길을 걷다



▶한줄 요약
밭작물을 심고, 보리를 추수하고, 모를 심는 계절. 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계절인지도 모른다.

희망·절박함 함께하는 두 얼굴의 절기

"한 번 더. 한 번 더 뛰어봐. 할 수 있어!"

산문을 나서는 길. 귓전을 스치는 다정한 목소리에 잠시 발길을 멈춘다. 자그마한 돌다리를 넘지 못하는 어린 딸의 손을 꼭 붙잡고 다독이는 젊은 아버지. 아직은 누군가의 아들인 편이 더 어울릴 법한 앳된 얼굴의 그가 자신의 아이를 지킨다.

하나의 세상에서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우주의 법칙. 그 오랜 이야기를 닮은 또 한 번의 절기, '소만(小滿)'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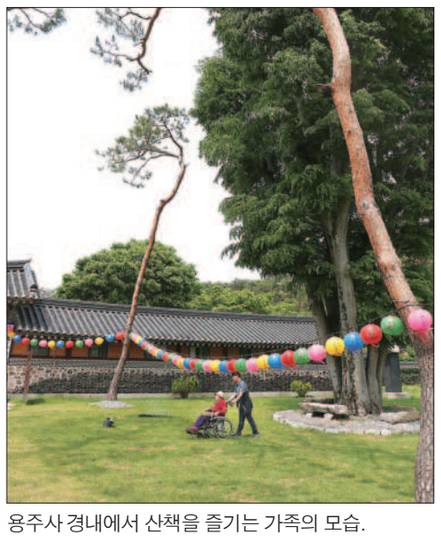
경기도 화성시 화산 기슭에 자리한 효찰대본산 용주사. 정조의 효심이 깃든 이곳을 찾는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왕실 원찰임을 상징하는 용주사 홍살문(사진 상단).



용주사 효행박물관 앞의 부모은중경탑.



용주사 경내에서 산책을 즐기는 가족의 모습.

소만의 얼굴

5월의 끝자락,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맑다. 들녘의 보리는 어느덧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모내기를 위한 손길이 분주해지는 때.

도드라진 세시풍속은 없다지만, 그만큼 농민들의 몸과 마음이 분주한 것도 바로 이즈음이다. 밭작물부터 모내기까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소만이기 때문.

곡우 무렵 새 볍씨를 물에 담근 그 날부터,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 모심기에 다다르기까지. 농민의 마음은 한없이 낮고, 작아진다. 제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한들 땅을 일구는 일이란 자연에 기대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그런 이유로 옛사람들은 볍씨를 담근 날이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어떤 동티도 나지 않도록 매사 조심하는 것이 일반이었다.

항아리에 금줄을 쳐 고사를 올리고, 또 초상집을 찾거나 부정한 일을 접한 사람은 집 앞에 불을 놓아 그 위를 건너 집안으로 들였다. 이른바 화기(火氣)로 악귀와 부정한 기운을 날려 보내는 것이다. 이때 집 안에 들어와서도 볍씨를 보지 못하는데, 만일 부정한 사람이 볍씨를 보거나 만지면 그해 농사를 망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절히 키워낸 한 뼘짜리 새싹은 한 해 농사의 명운이 달린 생명줄이었다. 밭작물을 심고, 보리를 추수하고, 모를 심는 계절. 이 절기는 희망과 절박함이 함께 한다.

따뜻하고 푸르른 5월의 모습. 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에 '소만 바람에 설늙은이 얼어 죽는다'는 두 얼굴의 절기. 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계절인지도 모른다.

보릿고개가 남았다

만물이 조금씩 차오른다는 소만. 아직 완전하지 않은 그 여백의 시간은 마지막 고비를 넘기 전 극한으로 차오른 빈곤이 채운다.

올해 농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지난해 가을 갈무리한 곡식은 이미 동이 난 지 오래. 초근목피로 견디며 희망을 꿈꿔야 하는 이 모진 시기를 옛사람들은 '보릿고개'라고 이름 지었다.

시골집 젊은 아낙 저녁거리가 없어서
빗속에 보리 베어 숲속으로 돌아오니
생나무는 습기 먹어 불길도 일지 않고
문에 들어오는 어린 딸은 옷 잡고 우는구나.

허균의 스승이었던 이달(李達, 1539~1612)이 쓴 '보리 베는 노래(刈麥謠, 예맥요)'에는 보릿고개를 나는 백성의 괴롭고 고달픈 삶이 절절히 그려진다.

비에 젖은 어머니가 베어 온 것은 아마도 채 영글지 않은 보리, 이른바 알곡이 익기도 전에 베어 양식을 마련하는 '풋바심'일 것이다. 축축해진 나무에 불을 피워보지만 그 또한 여의치 않은 상황. 젊은 어미의 가슴에는 치마에 걸린 어린 딸의 눈물보다 먼저 피눈물이 배인다.

이러한 상황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시인 이영도(李永道, 1916~1976)의 작품 '보릿고개'에도 여전히 남아 있다.

사흘 안 끓여도/ 솥이 하마 녹슬었나
보리누름 철은/ 해도 어이 이리 긴고
감꽃만/ 줍던 아이가/ 몰래 솥을 열어보네.

배고파 투정을 부려 보아도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아이는 가만히 솥을 열어본다. 하지만 이미 며칠째 일 없는 솥은 녹이 슬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실망한 아이가 맥없이 돌아서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감꽃이 피어나는 5월 하순, 지난 역사 속에 드리워진 우리네 삶의 애달픈 풍경이다.

죽추(竹秋)의 시간

소만을 이르는 또 다른 이름, 바로 죽추(竹秋)다.

온 산천이 푸르러지는 계절이지만, 이맘때의 대나무는 마치 가을처럼 누렇게 마르며 잎을 떨군다. 이는 큰 대나무가 어린 죽순에 제 양분을 나눠주며 생기는 현상으로, 마치 부모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자식을 키우는 모습과 닮아 있다.

경기도 화성시 화산 기슭에 자리한 효찰대본산 용주사. 이곳을 향해 거닐다 눈에 띈 것은 저 멀리 도량을 감싼 대나무 숲. 어느새 누렇게 말라 부슬부슬해진 댓잎이 땅 위를 소복이 덮었다. 만약 그 아래 새로이 자라나는 어린 죽순들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그저 무심히 지났을. 하지만 한 생명이 제 생을 다해 새로운 생명을 지키는 그 묵묵한 위대함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응원하게 되는 것이다.

화성 용주사 또한 부모 자식의 인연을 떼어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생명이라면 저마다 지닌 천륜의 몫. 용주사는 조선의 제22대 임금인 정조대왕이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경의황후의 명복을 빌고 넋을 기리기 위해 창건한 사찰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만날

본래 이곳은 신라 문성왕 16년(854년) 염거화상에 의해 창건된 갈양사의 터. 하지만 잦은 병난에 의해 소실되었던 이곳에 정조대왕은 용주사를 새로이 창건한다.

즉위 14년을 맞던 해,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 현륭원으로 이장하고, 용주사를 능침사찰(陵寢寺刹, 왕릉을 수호하기 위해 설치된 사찰)로 세웠다.

숭유억불의 시대, 본인의 입지에 위험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용주사의 존재를 공고히 하고 그 역할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장흥 보림사에서 보경 스님과의 우연한 만남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스님으로부터 부모 자식의 인연과 어버이의 은혜에 관한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이하 부모은중경) 설법을 듣고 깊이 감화한 정조는 사찰을 지을 것을 결심한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부왕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겨우 11살에 그 모습을 마주한 어린 아들. 정조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을 달래고, 또 아버지의 부재를 안은 채 살아야 했던 그 자신의 마음을 달랠 길을 불법에서 찾았다.

정조는 용주사 창건을 준비하며 〈부모은중경〉을 조각하여 그 경판을 용주사에 보관하고, 백성들을 위한 한글본을 편찬하여 만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했다. 그에게 효는 단순한 개인적 미덕이 아니라 국가와 민심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는지 모른다.

보릿고개를 상징하던 5월은 이제 '가족의 달'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친근하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 한 어느 아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이곳. 지금도 용주사에는 그 오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수많은 가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혹여 저 다정한 가족 중에 먼 시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못내 궁금해지곤 하는 것이다.

〈작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술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독시 석결명죽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 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십시오

지난 호에 이어서

이 비행기가 오나 안 오나, 그것도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걸 다 조사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안테나와 같은 이 머리가 오관을 통해서 전부 다섯 가지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첫째, 천체영사기와 천체망원경. 천체라 그랬습니다. 그냥 보는 망원경이 아니라 마음속의 망원경 말입니다. 눈 아닌 눈, 눈 뜬 사람의 눈 말입니다. 그래서 천체망원경, 그다음에 숙명통, 저 컴퓨터 천체입니다, 이게. 그 안테나 하나에 다 걸린다, 여기 다 와서 통신이 된다 이 소립니다. 이게 안테나라면 말입니다, 머리라면. 망원경, 컴퓨터, 탐지기, 또 천체 무전통신기, 또 가고 옴이 없는 신족, 즉 말하자면 그것을 무전통신기라고 보는데 이 모습 없는 모습들이 가고 오는 거, 이것은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더불어 모든 게 한데 합쳐서 천이통, 이것이 천체 무전통신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말하자면 천체망원경, 또 천이통, 천체 무전통신기, 또 컴퓨터, 탐지기 또는 모습 없는 모습, 즉 말하자면 책정기, 또 영사기, 즉 말하자면 영사기를 뭐라고 할까요? 신족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은 스크린처럼 자꾸 돌아가는, 물체가 보이는 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체 없는 물체가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신족통은.

그러니까 그 다섯 가지를 책정기가 모든 것을 오관을 통해서, 이게 안테나라면 전부 와 닿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도 여기 와 같이 닿고, 인간들의 근본도 여기 와 같이 닿고, 또 물속의 생명들도 전부 여기 와 닿고, 무정물의 생명도, 식물의 생명도, 흙의 생명도, 물의 생명도, 허공의 생명도, 지수화풍의 생명들이 전부 여기 와서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찰나 용도에 따라서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태풍이 왔다 하면 태풍이 온 대로 그것이 내가 된다면, 이게 내가 된다면 내가 나를 죽일 리가 없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자유권을 얻으실 수 있게끔 하시려면 첫째,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한 거. 모든 건 주인공을 믿고, 자기 참주인공을 믿고…. 아까 쭈욱 얘기했죠, 주인공이란 꽉 찬 나라고. 이 안테나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안 되는 것도 거기서밖에는 못 해.' 하고 맡기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그대로 부지런히 뛰면서 거기 생각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그런 여건이 머지않아서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꼭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껄껄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 원력, 그것이 한데 합쳐서 에너지로 화해서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도 소가 죽어갈 때 아프지 않고 죽어서 그 모습을 화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주어집니다, 무명만 벗겨 주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보살이며 부처며 법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충만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복수비잔가 뭔가 그것도 모릅니다만 그거를 내게 되면 수차 자주 올 겁니다. 알래스카에도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내가 뭘 일러 줄 텐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 리 밖에 나갔다가도,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안테나가 좀 움죽거리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스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빨리 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전화가 있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 못 해. 그런데 하물며 이 사방을 다 통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도 할 겸,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데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못하든 남자가 잘못하든 어떠한 거를 무릅쓰고 '아!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 할 거야.' 남편이 술을 아주 과하게 먹는다거나 또 안 들어온다거나 또는 성질이 이상해서 그렇다거나, 또 병이 들었다거나 그래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 해. 당신이 해결할 수밖엔 없어.' 하고선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말로는 좋게 해 드려요. 언제나 따뜻한 데 사람이 고이게 돼 있지 냉랭하고 추운 데 고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아주 잘 짐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면서 이 말로 좋게 얘길 해 주면, 아무리 속 썩이는 말을 하고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보, 당신 참 피로하지요." 하고서 좋게 얘기해 주고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다가 하소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척 잘못하고 들어왔는데도 번연히 알면서도 좋게 말해 주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자중할 수밖에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럭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 때는 사랑이 하고 싶어져. 그래서 가정으로 따뜻한 데로, 피로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게 돼 있어.

모두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야, 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됐다가 누이동생도 되고 딸도 되고 어떤 땐 할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돼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때에 따라서 속상하면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속상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지겠습니까.

사람이 화목하게, 질서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자유스럽게 아주 사랑하면서…. 진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그렇질 못하면 만날 만나면 싸우고 눈 노리고 좋은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니 가정이 뭐가 따뜻해. '아, 들어가면 또 그럴걸.' 하고 나가. 나가서 술 한잔 먹고 이리저리 풀다가 들어오거든. 바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풀어야 할 텐데 그렇질 못하다 이거야. 여러분이, 남편은 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할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 19면에서 계속

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또 친구가 돼 줄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동생도 돼 봐라 이거야.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우리가 참,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불법은,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일체 모두 생명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불법이나. 그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말해서 떨어지는 거는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전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진리니까.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없고 마음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화두요, 생활이 참선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자 진리자 생활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들어오면 벌써 저 부처님하고 내 형성된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요, 그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저런 이파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저런 이파리 하나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이파리 생명체, 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군사가 돼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호국불교를 한다고 몸뚱이가 나가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질 않습니다. 앉아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해야 싸움을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해도 그래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지. 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사회도 다 그렇죠. 상업을 해도 그렇고 공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무역을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것도 상업이니까.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육해공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그냥 말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요?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진실히 두십시오. 그럼 내가 말한 이 외의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광대무변한 거난 처음 봤어.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구나.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못 뜨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지리 혈맥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지리학을 써 놓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지리학이라기보다도 이 지리 혈맥, 모든 청룡 황룡 백호, 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라 그런다고 또 '나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입니다. '나' 하면 벌써 일체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 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나지, 어째서 개별적인 나입니까? 그러니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라는 것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 같이 살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항아리 속에 같이 우글우글하면서 아니, 내 집 네 집 찾을 게 뭐 있습니까, 한 항아리 속에서.

난 그게 딱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리를 몰라가지고야 어찌 지구 바깥을 나가서 우주의 섭리를 다 터득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한테 맡겨 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와요. 저승길에 들어가야 저승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허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승에 들어가기는커녕 살았다고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전에 어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그게 낮이 되면은 뜨근뜨근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뜨근뜨근합니다. 거기 드러누워서 밤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달랍니까, 누가 자리를 달랍니까? 가랍니까, 오랍니까? 말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조용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하고. 근데 그 총총한 별이 나란 말입니다. 나와 둘이 아니요, 이 세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요, 내가 발 없는 발이 수없이 두루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고 또 손 없는 손이 두루 내 손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아주 몸뚱이가 없어지는지 있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았던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와요.
저승 길에 들어가야 저승의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렇게 바둥바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랬는데 아, 그러고 가니까 길 없는 길을 내 자성이 나를 가르치는데 아, 가다 보니까, '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어떤 것이 길인데요?' '저기 저게 길이지.' 하고 저기를 가리키는데 거기는 천야만야한 산이라. 거길 가리키는 거야. '좋아! 내가 일단 나를 버린 이상에야.' 미련퉁이지,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 산을 그냥, 그냥 드어잡아 선 거야. 밤이나 낮이나 허, 발도 옮기지를 못해요, 그믐밤에는. 나무가 그냥 참참 쌓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하면 산비둘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벌써 그냥 모두가 울어 주는 거야. 햐, 여기 낭떠러지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낭떠러진 줄 알고 주춤하고 섰으면 틀림없어. 뱀이나 비둘기나 새나 전부 친구들이야, 모두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 야 참, 이 무르팍을 쳤다니까.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말로만, 이 뜻으로만 안 거하고 실천을 이렇게 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서부터 뭐든, 지나가는 소의 눈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 그것이 내가 아닌 게 없기 때문이야. 죽으러 가면서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단 말이야. "응, 너 아프지 말고 그 몸을 벗어." 그러면 벌써 그 영혼은 나하고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니 아나, 죽이니 아나. 우리 마취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냥 좋게 벗는 거지, 뭐.

콩깍지도 익은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싹 벗겨지고 익지 않은 거는 벗기면 그 살이 그냥 콩에 짝짝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아프지 않고 내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다가, 왜, 옷이 그렇게 헤지지 않았어도 부자는 좀 벗어서 놓지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다 헤지도록 입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좀 더 부유하게 마음을 넓게, 물리가 터지게, 지혜가 있게 이렇게 이 마음의 공부를 하시기를 참 바랍니다. 그리고 요다음에 또 만나면 실천에 좀 옮겨서 '아,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꼭 그러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전화를 하면 영락없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보, 빨리 들어와.' 하면 그냥 거기서 벌써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럭하곤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통신이라, 무전통신. 자력의 무전통신기.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세요. 다 거기다 맡기고 '네가,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시는 건데….' 그러고 딱 맡기고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 법인데 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팔만 사천 법문을 책에서만,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 집안이 좋아질 텐데, 아픈 것도 나을 텐데 이러고 외우지 마시고 전체 이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끼리끼리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엔 아픈 사람만 모이고, 허허허. (대중 웃음) 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휘이 둘러보세요, 안 그런가.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끼리끼리…. (녹음 안됨)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설계가 나왔어.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 설계가 나오니까 또 집이 턱 섰어.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밥을 턱 갖다 놨는데 아니,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신비한 거를.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를, 그 신비한 걸 몰라요. 우리가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하여튼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없이는 못 살아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를 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사서 쓴다, 바람을 사서 쓴다, 또는 불을 우리가 사서 쓴다, 일일이 이렇게 사서 쓴다면, 다른 것은 다 사서 써도 좋지만 이 공기만은 사서 쓴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이 요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그것도 도(道) 안에, 즉, 내 자동적인 심성을 깨달으면 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춤출 줄 몰라도 저절로 손이 돌아가면서 몸이 흔들어지면서 춤을 추게 되니 그것도 운동이요, 춤을 추니 남이 볼 때도 좋은 거요, 잘 추면 보기 좋으니 좋은 거요, 웃으니 좋은 거요, 서로 화목해지니 좋은 거요, 전부 좋지 않습니까? 춤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상생활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손을 하나 이렇게 드는데도 내가 이거 운동하려고 강제로 막 그러면 이게 참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각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춤출 때도 춤도 스스로서 추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두 여러분 주인공에 다 있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5월 24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강소연의 **수행 다이어리**

⑩ 바탕자리(2)

‘존재의 감옥’서 탈출하는 법

불교란 존재(개념 또는 덩어리)를 분해해서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현상을 꿰뚫어 보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요소들과 과정들’을 파헤친다. 그러면 ‘무상·고·무아’라는 진리가 드러난다. 대상을 꿰뚫어 그 실체를 보는 마음을 빤야(통찰지)라고 한다. 막연히 ‘내 몸과 마음’이라고 인식했던 ‘덩어리’를 빤야로 ‘분해’해 보면, 그것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와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끊임없는 만남과 그것의 무상한 전개임을 알 수 있다.

이 전개를 오온(五蘊, 색-수-상-행-식)이라고 한다.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6근과 6경의 끊임없는 만남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만남(촉, 觸)’을 통해 ‘느낌(수, 受)’이 일어나고, 이는 ‘인식과 분별(상, 想)’을 일으켜 ‘좋다 또는 싫다’로 반응(행, 行)하게 된다. 인식과 분별 작업에는 에고로서의 나(말라식)와 무의식(아뢰야식)이 이미 개입되어 작용한다. 그것은 ‘알아차림’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탐진치(貪瞋癡)’로 반응한다.

‘나’라는 ‘존재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이것과 저것이 만나 연기(緣起)되어 일어난 것에 대해 ‘취착’하면서, 다양한 오염 요소들(불선심소)이 줄줄이 작용하여 고통이 전개된다. 내 몸과 마음, 이것을 덩어리로 인식하는 한(즉, 분해해서 보지 않는 한)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존재’라는 것은 모두 ‘조건 지어져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 서로서로 맞물려 족쇄 채워진 조건들의 감옥이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 결속되어 일어나는 것을 연기(緣起)라고 한다.

붓다께서는 통찰지로 모든 존재의 결박을 보셨기에 ‘존재는 고(苦)’라는 진리를 천명하셨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의 실체는 ‘조건의 결박으로서의 덩어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는 그 자체로 감옥이다. 그것이 감옥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자유는 없다. ‘존재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붓다이시다. 존재(덩어리)를 해체해서 보는 방법! 그것은 ‘사마타+위빠사나’[정혜쌍수定慧雙修 또는 지관겸수止觀兼修]다.

사마타 수행이란 하나의 대상에 몰입함으로써 몸에 붙어있는 의식을 (몸으로부터) 분리시켜 마음을 해방시키는 작업이다. (6근과 6경의 만남으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동요의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잡아매어 둔다. 지속적 집중으로 마음의 분리가 일어나고 마음은 절대 고요에 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대상을 꿰뚫는 빤야(통찰지)가 발사된다. 빤야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마타가 필수이다. ‘사마타’를 한자로 번역하면 ‘정(定, 고정하다, 안정하다)’ 또는 산란한 마음을 멈춘다는 의미로 ‘멈출 지(止)’가 된다. 빤야는 ‘통찰하여 깨닫다’라는 의미로 ‘혜(慧)’로 번역된다.



개가 달 봤다, 이제 달이 개를 본다. ©강소연

‘나’로부터 ‘의식의 분리’가 필수!

사마타의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의 집중 대상(집중점)을 형성하고 마음을 그것에 고정시킨다 → ②(자꾸 산만해지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집중 대상에 부단히 붙여놓는다 → ③그 상태를 유지하면 대상이 뿌옇게 흰 구름처럼 보인다(니밋따) → ④대상이 점점 커지고 투명해지고 밝아진다 → ⑤(의식이 대상에 붙어 있으므로, 몸이 의식으로부터 놓여나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 몸의 정화가 일어난다. → ⑥(‘나’는 사라지고) 대상만이 홀로 찬란하다(무량광 또는 여의주). → ⑦‘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만 있다. → ⑧끝없는 바탕의식(반응 없이 아는 마음)과 하나가 된다(그 자리에서 ‘나와 세상’을 관조한다).

원리는 간단하다. 집중 대상에 의식을 붙여 둠으로써 의식이 (더 이상 ‘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분리’가 일어나고, 대상에 붙어 있던 그 의식마저 떨어져 나가고, 결국 바탕의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마타의 과정을 석가모니 붓다께서는 심(尋, 일으킨 생각) → 사(伺, 지속적 고찰) → 희(喜, 분리에 따른 희열) → 락(樂, 괴로움도 기쁨도 없는 지극한 평온한 사념청정捨念淸淨)으로 말씀하셨다.

개가 달 봤다, 이제 달이 개를 본다

이 과정을 ‘개와 달’에 비유해 보겠다. 평생 냄새를 쫓아 바닥만 킁킁대던 개가, 누군가(선지식이) 천공의 달을 가리키자 처음으로 고개를 든다. 그리고 달을 응시한다. 킁킁대는 분주한 행위는 평생을 욕망(또는 집착)의 노예로 자각 없이 사는 나의 모습이다. 천공의 달을 응시하는 행위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수행이다. 계속 끈질기게 달을 응시하니, 개에게 붙어있던 의식이 분리되어 달에게 가서 붙는다. 의식은 개로부터 분리되어 달과 하나가 된다. 이제는 반대로 저 아래에서 킁킁대는 개를 내려다본다. 달빛은 지상의 개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춘다. 달은 창공 그 자체가 되어 세상을 관조한다.

〈중앙승가대 교수〉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⑩ 우리 아이 키 크는 영양제

‘키 크는 약’은 없다

“약사님, 우리 아기 키 크는 영양제 추천 좀 부탁드려요.”

“아이가 또래에 비해 많이 작은 편인가요?”

“네. 좀 작은 편이어서 스트레스가 심해요.”

“키 크는 데에는 사실 밥 잘 먹고 잠을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밥은 골고루 먹어요? 수면 습관은 어때요?”

“편식을 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반찬 투정이 심하진 않아요. 그래도 요새 잠은 잘 자는 것 같은데요.”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요? 통잠은 자죠?”

“통잠이요? 아, 훈련소에 있으니까, 밤 10시쯤 자서 아침 6시쯤 일어나려나?”

“네? 자제분이 나이가?”

“스물두 살이에요. 훈련소에 있어요.”

“성장판이 이미 닫혔을 거 같은데요.”

오늘은 모든 부모들의 관심사인 ‘우리 아이 키 크는 약’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에는 ‘키 크는 약’이란 것은 없다. 좀 강하게 말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키 크는 약’이라기보다는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게 결핍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영양소를 적재적소에 공급해 주는 영양제가 있을 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성장기에는 키가 크기 위해 뼈가 자라야 하고, 그에 맞추어 혈액·근육·인대도 함께 성장해야 하는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영양소의 종류는 다양하다.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어, 키가 잘 자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단백질은 성장판과 뼈, 근육 형성에 필요한 기본 재료이며, 칼슘은 뼈의 형성과 성장판의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이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성장 영양제는 칼슘과 단백질을 기본으로 여러 다른 영양소를 조합하여 제품화된다.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비타민 D,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마그네슘, 뼈 단백질 생성에 관여하여 골밀도를 강화하는 비타민 K 등이 대표적인 성장 영양제의 주요 성분이다.

이 외에도 성장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아연, 콜라겐 합성과 뼈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C, 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비타민 A와 오메가-3 역시 성장과 키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이다.

요즘 약국에서 자주 찾는 영양제 중에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증 받은 HT042라는 성분이 있다. 매체를 통해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유명한 성분인데, 이 성분은 천연물 생약인 황기, 백출, 당귀 추출물을 혼합한 원료이다. HT042는 성장판 연골세포를 자극하여 골단판 성장을 유도하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IGF-1)의 분비를 촉진하여 뼈 성장에 도움이 되며, 성장호르몬 작용 효율을 높여 성장 반응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HT042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유일하게 키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물질이다. 임상시험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면, 6~8세의 키가 하위 25% 어린이들이 6주간 이 성분을 섭취하였을 때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0.29cm 더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키가 하위 10% 미만인 아이들 집단에서는 대조군보다 평균 0.45cm 더 성장했다고 하니, 키가 많이 작은 어린이의 성장에 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에계, 겨우 0.5cm도 안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수치도 엄청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이며, 평균값이 저 정도이니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HT042가 포함된 영양제는 성장 영양제 중에서도 꽤 고가에 속하므로 6개월 이상 섭취한다고 가정할 때 비용 대비 효용을 잘 고려하여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성장에 필요한 많은 영양소 중 어떤 것이 결핍되어 아이의 성장에 방해가 될지는 알기 어렵다. 아이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측 가능한데, 그 추측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선별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제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개를 들어 제목을 보자! ‘동네약국 사용설명서’라고 적혀있지 않은가!

약국을 찾아가서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추천받으면 될 것이다.

키가 크기 위해서는 영양제 섭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성장호르몬은 보통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므로 그 시간대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다. 농구, 줄넘기, 수영 같은 뼈와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선정하여 꾸준히 하고 하루 20~30분 정도는 가볍게 햇볕을 쬐는 것을 추천한다. 또 인스턴트 식품이나 당분이 과다한 음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결국 잘 먹고 잘 자고 신나게 뛰어노는 것이 키 성장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다.

정말 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것이 질병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성장판 검사를 받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처방받아 투여하는 것을 상담 받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치료는 치료이고, 영양제는 영양제일 뿐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키가 크는 약’은 없다. 하지만 키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제는 있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이룬 30년
다시 뛰는 BTN

BTN불교TV를 향한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뜰 앞의 잣나무
본 목 12:00 재 목 22:30 / 일 15:00



문광스님의 한국학 에세이
본 화 07:30 재 화 19:30 / 토 12:00



진명스님의 지대방 시즌3
본 화 12:00 재 화 22:30 / 토 16:00



자현스님과 떠나는 붓다로드 시즌2
본 금 08:30 재 금 19:30 / 토 15:00



법장스님의 투게더
본 금 07:30 재 금 16:00 / 일 23:15



다여스님의 땅설법
본 월 13:00 재 월 22:30 / 토 19:30



고인사이드 글로벌
본 수 07:30 재 수 20:30 / 토 08:30



꽃보다 출가
본 화 09:30 재 화 21:30 / 수 16:30



마음 여행을 위한 GPS 명상
본 수 13:00 재 수 23:15 / 일 14:00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전법 일기

AI로 담은 법음
상담 등 전법에 활용

요즘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사례를 자주 듣는다. 특히 작년부터는 AI 작곡 프로그램을 통해 찬불가를 만드는 불자들이 부쩍 늘었다. 나도 〈반야심경〉과 〈자애경〉을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낸 찬불가를 만들어 보았는데, "마음에 와닿는다", "계속 듣고 싶다"는 반응을 들으며 1시간 버전으로도 제작하게 되었다.

법을 전하는 방식은 시대와 인연에 따라 참으로 다양하다. 말과 글, 몸짓, 그림, 음악, 건축 등 여러 방편으로 법은 펼쳐질 수 있다. 어느 날 '긍정의 에너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작사는 내가 맡고, 작곡은 'SUNO AI'의 도움을 받아 12곡을 완성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았다. 지금은 '상글방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노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통영에서는 매년 어린이날이면 통영 룸비니회 주최로 초등학생 백일장이 열린다. 올해 백일장에 참여한 한 어린이 법우의 동시에서 '상글방글'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게 되었다. 사전을 찾아보니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고 환하게 웃는 모양"을 뜻하는 우리말이었다. 그 따뜻한 느낌이 마음에 남아 프로젝트 이름으로 삼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나를 사랑해', '그냥 이대로'라는 노래를 온라인 법당 '친절'에 공개했다.

얼마 전에는 상담을 요청받는 일이 있었다. 마음공부를 통해 삶이 달라졌다는 신도의 이야기를 듣고, 지인이 자신도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며 상담을 청한 것이다. 마주 앉은 그녀는 40대 어머니였고, 두 시간 넘게 자신이 살아온 삶을 쉼 없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늘 남을 먼저 챙기며 착하게만 살아왔던 그녀는 이제는 자신을 좀 더 돌보며 새로운 모습의 아내, 딸,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였다. 답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지만, 복잡하게 얽힌 생각 속에서 스스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질문을 통해 생각의 실타래에서 빠져나오자 그녀는 자신의 진짜 바람이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게 되었다. 얼굴빛이 한층 밝아진 그녀에게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라는 응원과 함께, 내가 만든 긍정의 노래도 들어보라고 권하며 상담을 마쳤다.

그날 오후, 그녀는 "나 자신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자신의 바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남편은 흔쾌히 수락했다고 한다. 오랜 고민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본인도 놀란 눈치였다. 참나를 찾아가는 마음공부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녀는 앞으로 스님과 마음공부 스터디를 함께하자고 제안해왔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온전히 공감해 주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렇게 마음을 열고, 마음을 듣는 일이야말로 언제나 소중한 전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한산 스님
온라인법당 '친절' 운영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⑯ 나옹 혜근 선사의 오도송

"미혹도 깨침도 모두 떨쳐 버려라"

미혹하면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가 고통의 대상이 되고(迷即山河爲所境)
깨치고 보면 온 세계가 그대로 내 몸이네(悟即塵塵是我身)
미혹도 깨침도 함께 떨쳐 버리니(迷悟兩頭俱打了)
닭이 새벽 오경에 계명성(鷄鳴聲)을 울리네(朝朝鷄向五更啼)

나옹 혜근(懶翁 惠勤, 1320~1376) 선사는 고려 말에 태고 보우(太古 普愚) 선사와 쌍벽을 이루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승이다. 중국 원나라에서 10년을 유학하여 중국 전통 선종인 임제종 제18대 평산 처림(平山 處林) 조사의 법맥을 받아 왔다.

공민왕과 우왕의 왕사로서 쇠망해 가던 나라에서 고통 속에 헤매는 서민 대중을 위한 전법 교화에 전력했다. 그의 법석은 희망의 등불이 되어 인산인해를 이루고, '부처의 후신'으로 추앙받았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나옹 선사가 오도송에서 밝혔듯이 눈으로 보는 대상에 현혹되지 않으면 된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사물을 보고, 미인을 보고 헛된 욕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미혹하면 눈에 보이는 산하대지가 고통의 대상이 되고"라고 읊었다.

12처설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인 6경(六境, 색성향미촉법)을 번뇌를 일으키는 도적이라 하여 6적(六賊)이라 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임을 알아야 고통에서 건너간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길은 내 마음으로 잘 생각하고 보면 된다. 고통스런 것은 생각을 하지 말던지, 생각을 전환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된다. 나옹 선사는 "깨치고 보면 온 세계가 그대로 내 몸이네"라고 노래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의 마음과 덕상(德相)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어리석어 보지 못한다"고 했다. 깨닫고 보면 중생이 부처이고, 고통스런 이 세상이 부처가 사는 땅이다. 연꽃이 높은 고원(高原)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더러운 연못에서 아름다운 꽃을 핀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고통을 일으키는 마왕이다. 집착을 놓아 버리면 고통의 딱지가 떨어져 나간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뗏목의 비유'를 통해서 강을 건너왔으면 과감히 뗏목을 버리고 길을 떠나라고 가르쳤다. 깨침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였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아상(我相), 내 생각만이 옳다는 아집과 독선이 중생의 고질병이다.

나옹 선사는 "미혹도 깨침도 함께 떨쳐 버리니 새벽 오경에 닭이 계명성(鷄鳴聲)을 울리네"라고 결구하였다. 계명성은 어두운 중생의 마음을 깨우는 오도의 외침이다. 이 오도송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한 편의 멋진 설법시이다.

나옹 선사가 불교 교리를 대중이 알기 쉽게 가사체로 노래한 '서왕가(西往歌, 서방정토 왕생가)'는 우리나라 가사(歌辭) 문학의 효시라고 평가를 받는다. 〈나옹선사어록〉에는 주옥같은 깨달음을 노래한 선시가 있다. 한국문학사에서 금자탑을 쌓은 불후의 시승이다.

예전부터 나옹 선사의 시라고 구전되고 있는 '청산은 나를 보고'는 지금 수많은 가수들이 작곡하여 열창하고 있는 가사이다. 순수 자연 속을 소요하는 구도자의 해탈 무애(無碍)한 삶을 노래한 시상과 리듬의 품격을 갖춘 절창이다.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靑山兮要我以無語)
창공은 나를 보고 티없이 살라 하네(蒼空兮要我以無垢)
사랑도 벗어 놓고 미움도 벗어 놓고(聊無愛而無憎兮)
물같이 바람같이 살다가 가라 하네(如水如風而終我)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간판 사건'에 드러난 우리 사회 '종교 감수성'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한 달 전, 아는 스님에게서 사진 한 장과 메시지를 받았다. 사진 속에는 승복을 입고 염주를 든 채 혀를 내민 소 캐릭터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었다. '00 숯불갈비'라는 식당 이름과 함께. 순간, 이것은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대한 존중의 문제임을 직감했다.

곧바로 해당 간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썼다. 살생을 금하는 불교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마케팅 방식에 대해 "상식 밖"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업체 측은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행히 조속한 대응으로 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낮은 종교 감수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씁쓸함을 남겼다.

'성인지 감수성'이 성별 간 차별과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조심하는 태도라면, 종교 감수성은 다원 사회에서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예의다. 종교의 상징이 거리의 간판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할 때, 이는 단순한 희화화를 넘어 시민사회의 품격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 회장은 이번 일을 두고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감수성을 지키는 것은 행정기관과 시민, 불자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정 종교에 국한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신앙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윤리적 요청이다.

불교뿐 아니라 그 어떤 종교적 상징도 상업적 도구나 조롱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교를 '타인의 신념'이 아닌 '내가 자유롭게 소비해도 되는 기호'로 여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믿음과 가치를 조롱하거나 훼손하는 방식으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 한계에 대해 스스로 물어야 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우리는 타인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담고 있는 정신과 상징을 존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종교 감수성은 종교인의 '예민함'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 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활엽수 숲’, 고운사 지킨 초록 신장

특별기고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고운사 항공 사진. 화마를 피해 간 전각 주위에는 모두 ‘활엽수 숲’이 자리하고 있다. 고운사를 지킨 것은 ‘활엽수 숲’이라는 초록의 신장이었다. 사진제공=남준기 기후재난연구소 공동대표

올 봄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소실되었다. 불교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이 사라진 터라 많은 이들이 비통해했다. 전각들이야 다시 복원될 테지만 기와며 기둥, 문고리, 문지방에 쌓였을 오랜 시간의 축적을 무슨 수로 되살려낼까? 목조건축물인 사찰에 가장 취약한 재난이 화재다. 이런 까닭에 그동안 여러 사찰에서 산불을 예방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토록 처참한 결과를 마주하고 나니 과연 그동안 해온 산불 예방이 과연 적절했는지, 오히려 피해를 부추기는 잘못된 해법은 아니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또한 어째서 불이 그토록 거칠고 광폭하게 산등성이를 넘으며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정말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순전한 자연재해였는지도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산불, 기후 위기가 원인일까

이번 재난의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거론하는 이들이 꽤 있다. 겨울에 눈이 귀해져 봄철 가뭄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을 기후변화로 뭉뚱그리면 거대 담론 앞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린다. 중요한 건 모든 산불이 반드시 크게 번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산불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습도를 꼽는다. 대형 산불이 여름에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 지구적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건조지대에 속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습한 기후대에 속해 있음에도 산불이 대형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건조한 중국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말이다.

모든 나무가 불타지 않는다

산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해 보인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가더라도 모든 나무가 불타는 건 아니다.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국립공원 숲은 이번 산불의 피해로부터 거의 비껴갔다. 반면 산림청이 숲 가꾸기를 하며 손을 댄 곳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화마의 비극이 낭자했다.

두 지역의 확연한 차이를 설명할 근거가 숲 가꾸기 말고 달리 없어 보인다. 자연스레 자라던 활엽수를 숲 가꾸기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베어내며 산불에 안전한 숲으로의 변화를 가로막았다. 잘린 나뭇더미는 곳곳에 방치된 채 바싹 말라갔다. 소나무의 송진은 불이 잘 붙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타고 불길이 위로 솟구치며 나무를 전소시킨다. 주변에 바싹 마른 나뭇더미는 불을 지속시키는 땔감이 돼버렸다. 게다가 강풍이 불 경우 위로 치솟은 불길은 주변으로 넘실대며 삽시간에 불바다를 이루기 좋은 조건을 형성한다.

임도 부족이 진화 해결이라고?

숲에 낸 길인 임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화재를 제때 막지 못했다는 산림청의 이야기를 살펴보자. 막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은 불가하다. 범종이 갈라지고 바위조차 터질 정도의 고온에 기름탱크를 장착한 소방차는 섶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 대형 산불에 화재 진압용 소방차가 드나들 임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임도는 바람길을 열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이번 산불이 대형화된 원인 가운데 강풍이 불었던 게 큰 변수로 작용했다. 만약, 임도조차 없이 활엽수로 빼곡한 숲이었대도 이토록 불길이 등성이를 넘어 뻗어갈 수 있었을까?

고운사 지킨 영험한 기운은?

이 와중에도 고운사의 삼성각을 비롯해 일주문, 사천왕문, 대웅전, 나한전, 명부전 등 화마를 피해 살아남은 전각도 있다. 영험한 기운 덕분이라는 얘기가 회자되던데 그 ‘영험한’ 기운은 다름 아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활엽수 숲’이었다.

그렇다면 자연 방화벽 역할을 한 이 활엽수 숲을 가꾼 건 누구일까? 어치며 다람쥐가 겨우내 먹으려고 땅에 묻어둔 도토리가 참나무 숲을 이루었을 것이다. 뭇 생명의 조력으로 자연스레 형성된 숲을 밀어버리고 수종을 바꾸는 와중에 서식지를 잃어버린 생물들의 안위를 누가 한번 빌어는 줬을까?

여타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한 불교의 가치가 불살생이다. 숲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속절없이 사라져간 무수한 생명 뒤로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숲을 가꾼다는 말에 스며든 오만함은 불살생의 계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불교를 흔히 ‘숲의 종교’라 한다. 〈금강경〉의 무대였던 기원정사뿐만 아니라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고 최초로 설법을 했던 녹야원 등 경전에 등장하는 성지는 온통 숲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사찰의 75%는 숲에 있다.

산사를 든든하게 지켜준 초록 신장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했는지 돌아볼 일이다. 불타버린 잔해와 대비되는 초록빛, 그 영험한 초록의 기운이 신장이며 뭇 생명의 삶터이자 우리 숲의 자연스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불자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산불 예방이라는 허울로 멀쩡한 숲을 밀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이젠 멈춰야 한다.

社 說

지혜·자비심 갖춘 지도자 선택하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다. 그만큼 유권자인 국민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정책 공약을 내놓고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불교 공약을 발표하고 불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연등회 전승관 건립과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및 명상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을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문화유산 관리 지원체계의 전향적 개선을 비롯해 10·27법난 기념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들이 바라는 지도자는 우리 삶에 도움과 희망을 주는 사람일 것이다.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구성원 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지도자를 국민은 바란다. 결국 정치란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대승보살행을 구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여덟 가지 바른 길로 ‘팔정도’를 설하셨다. 이 중 바른 견해를 갖는 정견(正見)을 비롯해 악행과 부정하지 않는 정업(正業)·정명(正命), 올바른 말을 하는 정어(正語)를 갖춘 사람이 바른 정치인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대승보살을 지도자로 선택하자. 국민 역시 정견의 눈으로 선거에 임하길 바란다.

사찰음식, 전통으로 만드는 미래

사찰음식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사찰음식은 불교의 정신을 담아 사찰에서 전승해 온 음식으로, 스님들의 일상적인 수행식과 발우공양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식사법을 포괄한다.

수행식으로서의 사찰음식은 재료를 거두어 음식을 만들고 먹는 일까지,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탐욕을 경계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식사법인 발우공양은 생명과 환경에 감사하며 필요 이상을 취하지 않는 절제의 정신을 담은 의례다.

사찰음식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전통 식문화와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 특히 불살생의 불교사상에 기초해 육류와 생선, 오신채(마늘·파·부추·달래·흥거) 없이 조리하는 채식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또 사찰이 위치한 지역의 향토적 특성을 반영해, 다른 국가의 사찰음식과도 차별화된다.

사찰음식은 조리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 사상과 절제의 철학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은 사찰음식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 변화, 과도한 육식, 식량 불평등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현대인들에게 사찰음식이 제시하는 절제와 공존, 자족의 가치는 환경·윤리·수행의 측면에서 조명되어야 할 삶의 방식이자,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이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계기로 사찰음식에 관한 연구와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이 적극 이뤄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일붕 서경보 존자 제29주기 추모다례재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세계불교초대법왕을 역임하시며 불법 홍포에 매진하신 일붕 서경보 존자의 제29주기 추모다례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종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 : 2025년 6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세검정 일붕선원
- 문의 :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2025하계수련회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종도 스님들의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2025년도 하계 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사암의 발전과 스님들의 법체 강녕을 기원하며, 많은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5년 6월 11일(수)~13일(금)
- 장 소 : 보현정사 (경북 경산시 와촌면 솔목길 15-5)
- 담 당 : 지화 스님 (010-3525-7190)
- 회 비 : 15만원
- 준비물 : 가사 · 장삼, 개인 세면도구, 간편한 복장 등
- 문 의 : 성혜 스님 (010-8082-9503)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5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황경환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의 깨달음 여정에서 남긴 '108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sampajañña, sammāsati
미련없는 작별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에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 진, 치貪瞋痴 삼독三毒이
그 원인原因이고 원흉元兇이었다.

이제 그 무지無知의 업業을 타파하고 명지明知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無塵悟道頌 II

無塵 황경환 지음 | 더종북스 | 175쪽 | 값 15,000원

인간의 몸을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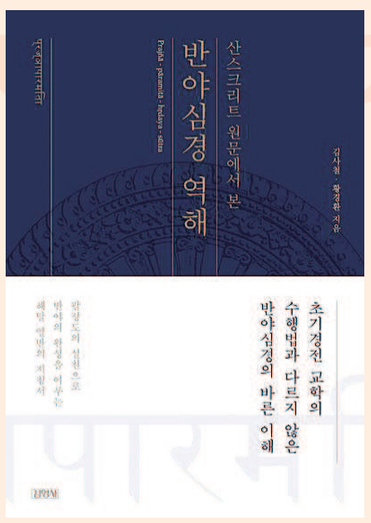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란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담마의 법法 Dhamma를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본문 중에서



황경환 불법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는 수행자이자 사업가이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윤리교육학과를 수료하였고, 현재 동국대 명예 철학박사이며 동국대 불교대학 석좌교수이다. 1977년부터 한국불교연구원에서 30여 년간 이사 및 연구위원으로 활동했고 국제 PTP(People To People: 세계 평화 구현을 위한 국제 민간 외교단체) 한국본부 총재직 및 울산불교방송 사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부터 지금까지 국제 PTP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고, 현재 초기불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며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이다. 저서로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2009),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2020, 공저)가 있다.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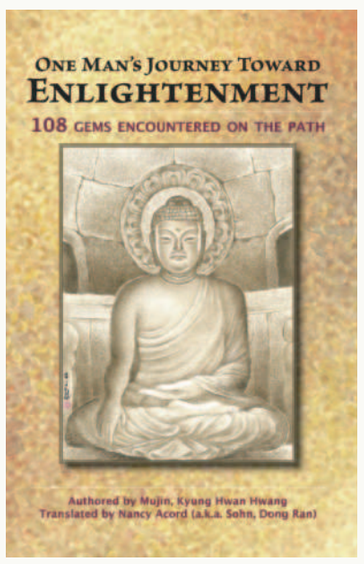
가장 짧지만 가장 많은 해설이 난무하는 《반야심경》
왜 이렇게 많은 해석이 필요할까?

《반야심경》이 어려운 이유는 한문 자체의 난해함과 한역의 부정확성 때문이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우리말로 알기 쉽게 풀어내며, 초기 경전의 수행법을 기반으로 하여 《반야심경》을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조망한다. 《반야심경》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명상 수행과 이를 통한 완전한 깨달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라는 참신한 시각에서, 초기 경전의 다양한 경문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한다. '지혜의 완성', 즉 '반야바라밀다'란 계·정·혜 삼학, 즉 팔정도의 실천과 완성임을 명쾌하게 밝힌다.

김사철·환경환 지음 | 김영사 | 272쪽 | 15,800원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깨달음의 여정에서 건져올린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



ONE MAN'S JOURNEY TOWARD ENLIGHTENMENT
108 GEMS ENCOUNTERED ON THE PATH

근본 불교가 가리켜 보이는 진리의 핵심 대의에서부터
양자물리학이 말하는 불교 사상에 이르기까지
초기불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인 저자가
평생에 걸쳐 수집해 온 108가지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 영원한 자유의 길을 펼쳐 보인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주워 올린 108개의 보석들'이라는 제목으로
영문판 발행, 아마존에서 페이퍼백, 전자책, 오디오북 발매중!

책 주문처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